

『靈樞·雜病』에 對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韓相仁·李南九

對於『靈樞·雜病』的研究

韓相仁·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靈樞·雜病』論述了厥氣四證，心痛六證，顛痛二證，以及膝痛，喉痛，齒痛，耳聾，疝，腰痛，氣逆，項痛，腹痛，痿厥，衄，嘔等各證的病情，診斷及刺法。因該篇所論述的內容并未局限於特定的疾病，而是論述了臨床常見的諸多病證，所以篇名稱爲雜病。雜病是因內傷或外感所致的疾病，在古代傷寒等外感性疾患，對人類生命構成了很大威脅，但是到了現在由於現代文明發達，以及生活方式的多樣化，內傷雜病却成了更大的威脅因素。

本篇在『黃帝內經章句索引』分爲了五節，在『靈樞經校釋』及『黃帝內經靈樞經語譯』分爲了二十九節，筆者寄於便利上的考慮，遵循『黃帝內經章句索引』而分爲五節進行了研究。本篇記載了常見的很多雜病，在臨床上有很大的研究價值。但是通過歷代多次轉抄，有很多誤植，錯簡，假借的部分，因此有很多不易理解的地方。如果不參照多種版本和歷代註釋家的研究成果，就無法真正領會其本意。寄於這一點，本篇論文研究了歷代版本和註釋家的見解，並進行了校勘和校註，再加於了懸吐及國語注釋，以期更有助於正確地理解原文的本意。

關鍵詞：『靈樞·雜病』，厥氣四證，心痛六證，顛痛二證。

I. 緒論

『雜病』은 『靈樞』第二十六에 編述되어 있는데, 『太素』에는 卷二十五「十二疝」, 卷二十六厥頭痛「厥心痛」, 卷三十「膝痛」「刺疝節度」「耳聾」「衄血」「腰痛」「喜怒」「頰痛」「項痛」「刺腹滿數」「痿厥」「療嘔」에, 『甲乙經』에는 卷七第一第三, 卷九第一第二第四第五第七第八第九, 卷十第一, 卷十二第一第五第七에, 『類經』에는 鍼刺類 卷二十一「刺頭項七

竅病」「刺心痛并蟲瘕蛟蝮」卷二十二「刺胸背腹痛」「刺腰痛」「刺厥痺」「刺四肢病」「刺諸病諸痛」에 敍述되어 있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에서는 五節, 『靈樞經校釋』과 『黃帝內經靈樞經語譯』에서는 二十九節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는 便宜上 『黃帝內經章句索引』에 따라 五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本篇에서는 厥氣四證, 心痛六證, 顛痛二證 그리고 膝痛, 喉痛, 齒痛, 耳聾, 疝, 腰痛, 氣逆, 項痛, 腹痛, 痿厥, 衄, 嘔의 各一證에 對한 病情과 診斷 그리고 刺法에 對하여 論述하고 있는데, 어떤 特定 疾病만을 다루지 않고 臨床上 흔히 볼 수 있

\* 交信著者：李南九，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61) 330-3525, ngoo3525@hanmail.net

는 雜多한 病證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篇名을 雜病이라고 하였다. 雜病은 內傷 혹은 外感과 連繫되어 생기는 疾病으로, 古代에는 傷寒 등 外感性 疾患이 人間의 生命에 큰 威脅을 가하였으나 現代에 들어서는 오히려 文明의 발달과 生活樣相의 多樣化로 內傷雜病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本篇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雜病을 다루고 있어 臨床上 연구할 가치가 크나, 많은 세월이 걸쳐 여러 차례 轉寫되어 오는 過程中에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이 많아 理解하기가 몹시 어렵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研究成果를 參照하지 않고는 본래의 趣旨를 解得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들의 見解를 研究하여 校勘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精確한 理解를 돕고자 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 1. 研究方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釋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 가. 原文은 『聚珍做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 나. 본문의 단락은 『黃帝內經章句索引』, 『靈樞經白話解』, 『黃帝內經靈樞經校注語譯』,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그 內容에 따라 五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으나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調查하였다.
-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 바. 較註는 「表二」의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고,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

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sup>(00)</sup>, 字句解에 <sup>(00)</sup>, 較註에 <sup>[00]</sup>, 引用文獻에 <sup>『00』</sup>, 文獻의 章節에 <sup>『00』</sup>, 脚註는 <sup>1), 2), 3), 4)</sup>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 2. 研究資料

표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書目	略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靈樞經校釋 /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黃帝內經靈樞經較註語譯 /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衆書本	統本
5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6	引用本 /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7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8	日本舊抄本	日抄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日刻本
10	楊上善『黃帝內經太素』	太素
11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2	孫思邈『千金要方』	千金
12	張介賓『類經』	類經
13	馬蒔『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注本
14	張志聰『靈樞集註』	張注本

표 2. 較註에 引用한 文獻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張介賓	明	類經	景岳
3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4	張志聰	清	靈樞集註	張
5	黃元御	清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黃
6	丹波元簡	1803年	靈樞識	丹波
7	楊維傑	1976年	黃帝內經靈樞譯解	傑
8	小曾戶洋	1981年	黃帝內經古注選集·靈樞講義	講義
9	陳璧琉·鄭卓人	1962年	靈樞經白話解	白話解
10	郭霽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 III. 本論

#### 第一節. 厥氣四證의 刺法

##### 【原文】

厥에 挾脊而痛者<sup>1)</sup>는 至頂<sup>2)</sup>하여 頭沉沉然<sup>3)(1)</sup>하여 目眈眈然<sup>2)</sup>하고 腰脊強<sup>하</sup>니 取足太陽腦中<sup>3)</sup>血絡이라

厥에 滿面腫<sup>하</sup>며 唇深潔然<sup>4)(4)</sup>하여 暴言難<sup>하</sup>고 甚則不能言<sup>하</sup>면 取足陽明이라

厥氣<sup>5)</sup>走喉而不能言<sup>하</sup>며 手足清<sup>하</sup>며 大便不利<sup>하</sup>면 取足少陰이라

厥而腹嚮嚮然<sup>5)(6)</sup>多寒氣<sup>하</sup>며 腹中穀穀<sup>6)(7)</sup>하여 便溲難<sup>하</sup>면 取足太陰이라

##### 【校勘】

- 1) 者: 『太素』卷二十六厥 頭痛, 『甲乙』卷七第一, 張注本에는 이 글자가 없다.
- 2) 頂: 『太素』卷二十六 「厥頭痛」에는 '頂'으로 되어 있다.
- 3) 至頂頭沉沉然: 『甲乙』卷七第一에는 '主頭頂几几'로 되어 있다.

4) 潔潔然: 金陵本, 黃校本에는 '潔潔'으로, 『太素』卷二十六厥 頭痛,에는 '思思'로, 『甲乙』卷七第三에는 '肩中熱'로 되어 있다.

5) 嚮嚮然: 『甲乙』卷七第三에는 '膨膨'으로, 馬注本과 張注本에는 '響響然'으로 되어 있다.

6) 穀穀: 『太素』卷二十六厥 頭痛,에는 '榮榮'으로, 『甲乙』卷七第一에는 ' '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沉沉然: 무거워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말함.
- (2) 眈眈然: 눈이 잘 안 보임. 厥氣가 上逆하여 머리로 치받아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눈 자체의 질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3) 腦中: 무릎뒤쪽 委中穴 部位를 말함.
- (4) 唇深潔然: 입술이 붓고 침을 질질 흘리는 증상.
- (5) 厥氣: 厥逆된 氣, 즉 經氣가 逆亂된 것을 말함.
- (6) 嚮嚮然: 寒氣가 腹部에 鬱滯되어 腹部가 膨滿된 느낌을 말함.
- (7) 穀穀: 물이 흐르는 소리 즉 腸鳴을 말한다.

##### 【較註】

[1] 厥挾脊而痛者至頂 頭沈沈然 目眈眈然 腰脊強 取足太陽腦中血絡

楊·馬·張·景岳·黃은 “厥氣가 頭頂部와 腰脊에 있는 경우는 膀胱經의 病이기 때문에 腦中の 血絡을 刺鍼해야 한다. 腦中은 足太陽의 委中穴 部位이다.”<sup>1)</sup>고 하였다.

[2] 厥胸滿面腫 唇深潔然 暴言難 甚則不能言 取足陽明

楊·馬·張·景岳·黃·語譯은 “厥病이 얼굴과 가슴

1) 楊: 頭目項及腰脊腦은 足太陽脈所行이라 故로 生病腦中也라 ○馬: 此는 言刺厥病諸證之法也라 厥逆爲病은 挾脊而痛이 至於其頂하여 頭則昏沈而不能舉하며 目則眈眈然而不明하며 腰脊皆強而不能屈伸하면 此乃足太陽膀胱有邪也니 當取其腦中之穴曰委中者하여 以去其血絡也라 ○張: 足太陽之脈이 起於目內眥하여 上額交巔하여 從巔入絡腦하고 還出別下項하여 挾脊抵腰中하고 太陽之氣는 主於膚表하니 客氣始傷太陽하면 則經氣厥逆而爲頭目項脊之病이라 故로 當取足太陽腦中血絡以瀉其邪라 ●景岳: 厥在頭頂腰脊者는 膀胱經病也라 故로 當取腦中血絡이니 卽足太陽之委中穴이라 ○黃: 足太陽腦中血絡은 委中穴也라

부위에 있을 때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胃脈이 響으로 運行하여 口唇을 끼고 돌아 喉嚨으로 循行해서 胸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足陽明經穴을 취해서 치료해야 한다.”<sup>2)</sup>고 하였다.

[3] 厥氣走喉而不能言 手足清 大便不利 取足少陰

楊·馬·張·景岳은 “厥氣가 喉嚨으로 侵犯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腎脈이 喉嚨으로 循行하여 舌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手足이 시린 것은 腎은 水를 主管하는데 陰邪가 盛해진 까닭이며, 大便이 不利한 것은 陰氣가 轉化되지 않기 때문이니 足少陰經穴을 취해서 치료해야 한다.”<sup>3)</sup>고 하였다.

[4] 厥而腹嚮然多寒氣 腹中穀穀 便澁難 取足太陰

楊·馬·張·景岳·黃은 “腹部가 팽팽한 것은 寒氣가 脾臟에 鬱滯되었기 때문이다. 然은 水穀이 나뉘어지지 않아 나는 소리이고, 小便과 大便을 잘 못 보는 것은 脾脈이 陰器에 모이기 때문이니 足太陰經穴을 취해서 치료해야 한다.”<sup>4)</sup>고 하였다.

- 2) 楊: 此는 皆足陽明脈所行이라 故로 取足陽明輸하여 療主病者라 ○馬: 厥逆爲病이 胸滿面腫하며 其唇則深潔然而有涎出唾下之意하며 猝暴難言하고 甚則全不能言하면 此乃足陽明胃經有邪也니 當取胃經之穴以刺之라 ○張: 足陽明之脈이 起於鼻하여 交頰中하고 挾口環唇하여 循喉嚨하여 入缺盆하여 下膈하고 本經曰 中於面則下陽明이라 하니 蓋中於面之皮膚則面腫이요 下於陽明之經則爲胸滿唇深潔諸證이라 喉嚨者는 氣之所以上下也라 陽明之脈이 循喉嚨하여 挾舌本하니 厥氣上逆於喉라 故로 不能言이라 ●景岳: 唇深潔은 腫起貌라 病而在面在胸에 及不能言者는 以胃脈이 行於頰頰하여 挾口環唇하고 循喉嚨하여 下胸膈也라 故로 當取足陽明經穴以治之라 ○黃: 唇深潔然은 縱緩不收也라 ○語譯: 按컨대 深潔與唇字는 義不相合이라 太素作思思하니 亦非其義라 深潔疑는 累累之誤字라 累累는 形容唇腫之厚라
- 3) 楊: 手足清者는 手少陰與足少陰通이라 故로 手足冷에 取足少陰輸하여 療主病者也라 ○馬: 厥逆爲病이 其氣上走於喉而不能言하며 手足皆冷하며 大便不利하면 當取足少陰腎經之穴以刺之라 ○張: 腎爲生氣之原이니 氣逆故로 手足清이요 腎開竅於二陰故로 大便不利하니 當取足少陰以通其逆氣라 ●景岳: 厥氣走喉而不能言者는 腎脈이 循喉嚨하여 繫舌本也요 手足清者는 腎主水하니 陰邪盛也요 大便不利者는 陰氣不化也라 故로 當取足少陰經穴也라
- 4) 楊: 腹脹多寒과 便澁不利는 皆是足太陰脈所爲라 故로 取之也라 ○馬: 厥逆爲病이 腹中響響然而氣善走布하고 且多有寒氣하며 又 然而有聲하고 大小便甚難하면 當取足

### 【考察】

1. ‘者’가 『太素』卷二十六 厥頭痛, 『甲乙』卷七 第一, 張注本에는 이 글자가 없는데, 挾脊而痛이 바로 頭頂내지는 頭項에 까지 파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者’字는 없는 것이 原文을 이해하는데 낫다. 또한 ‘頂’이 『太素』卷二十六 「厥頭痛」에는 ‘項’으로 되어 있는데, 脊背의 痛症이 이마 부위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臨床上 전혀 蓋然性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위로 보아 뒷목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나으므로 ‘頂’은 ‘項’의 傳寫過程中的 誤謬로 보인다. ‘至頂頭沉沉然’中 ‘沉沉然’이 『甲乙』卷七 第一에는 ‘几几’로 되어 있는데, 厥氣가 上逆하면 머리가 무겁다기보다는 뻗뻗하다고 보는 것이 나으므로 甲乙의 記載가 意味上 이해하기 쉽다. 几几는 強直의 뜻이다.

2. 唇深潔然에 대하여 馬는 “涎出唾下” 즉 침을 질질 흘리는 증상으로 보았고, 景岳과 語譯은 “腫起貌”로 보아 입술이 붓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黃은 입술이 마비되어 축 늘어져 있는 증상으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입 주위의 經氣가 厥逆되어 입술이 마비되고 부어 침을 흘리는 증상으로 보면 文脈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直譯】

厥症에 등의 통증이 뒷목에까지 이어져 머리가 무거워 들기 어렵고 눈이 침침하며 허리와 등이 뻗뻗하면 足太陽膀胱經의 委中穴 部位의 血絡을 제거해야 한다.

厥症에 얼굴이 온통 붓고 입술이 붓고 마비되어 침을 질질 흘리며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다가 심하면 전혀 말을 못하게 되면 足陽明經穴을 취해서 치료해야 한다.

太陰脾經之穴以刺之라 ○張: 腹乃脾土之邪廓이니 氣厥於內라 故로 腹響響然이라 太陰濕土主氣는 爲陰中之至陰이라 故로 寒氣多而 然如水濕之聲也라 地氣不升則天氣不降이라 故로 澁便難하니 取足太陰以散厥逆이라 ●景岳: 腹嚮嚮然은 寒氣滯於脾也라 又 然은 水穀不分之聲也요 澁便難은 脾脈이 聚於陰器也라 故로 當取足太陰經穴이라 ○黃: 腹嚮嚮然은 多寒氣라 腹中은 中寒土濕하여 水穀不消하여 滯氣鬱勃也라

厥逆된 氣運이 喉嚨으로 침범하여 말을 못하고 手足이 시리며 大便을 잘 보지 못하면 足少陰 經穴을 취해서 치료해야 한다.

厥症에 腹部가 膨滿되고 寒氣가 많으며 背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소변과 대변을 보기 어려우면 足太陰經穴을 취해서 치료해야 한다.

## 第二節. 口中熱, 膝中痛, 喉痺, 齒痛, 聾, 衄, 腰痛, 喜怒, 顛痛, 項痛 등 十一證의 刺法

### 【原文】

啞乾<sup>1</sup>라고 口中熱<sup>1</sup>이라 如膠<sup>(1)</sup>면 取足少陰<sup>(2)</sup>이라  
 膝中痛<sup>러면</sup> 取犢鼻<sup>(2)</sup>호대 以員利鍼<sup>(3)</sup>이요 發而間之<sup>(4)(3)</sup>라  
 鍼大如釐<sup>(4)</sup>니 刺膝無疑라  
 喉痺<sup>(5)</sup>에 不能言<sup>하면</sup> 取足陽明<sup>하고</sup> 能言<sup>하면</sup> 取手陽明<sup>(5)</sup>이라  
 瘧不渴<sup>(6)</sup>하고 間日而作<sup>하면</sup> 取足陽明<sup>(7)</sup>하고 渴而日作<sup>(8)</sup>하면  
 取手陽明<sup>(9)</sup>이라  
 齒痛<sup>(10)</sup>에 不惡清飲<sup>(6)</sup>하면 取足陽明<sup>하고</sup> 惡清飲<sup>하면</sup> 取手  
 陽明<sup>이라</sup>  
 聾而不痛者<sup>는</sup> 取足少陽<sup>하고</sup> 聾而痛者<sup>는</sup> 取手陽明<sup>(11)</sup>이라  
 衄而不止<sup>하여</sup> 衄<sup>(7)</sup>血流<sup>(12)</sup>하면 取足太陽<sup>하고</sup> 衄血<sup>(13)</sup>은 取手  
 太陽<sup>호대</sup> 不已<sup>면</sup> 刺宛骨<sup>(8)</sup>下<sup>하고</sup> 不已<sup>면</sup> 刺腦中出血<sup>이라</sup>  
 腰痛<sup>에</sup> 痛上寒<sup>(14)</sup>하면 取足太陽陽明<sup>(15)</sup>하고 痛上熱<sup>하면</sup> 取  
 足厥陰<sup>하며</sup> 不可以俛仰<sup>하면</sup> 取足少陽<sup>(16)</sup>하고 中熱而喘<sup>하면</sup> 取  
 足少陰 腦中血絡<sup>이라</sup>  
 喜怒<sup>(17)</sup>而不欲食<sup>하고</sup> 言益小<sup>(18)</sup>하면 刺足太陰<sup>하고</sup> 怒而多  
 言<sup>하면</sup> 刺足少陽<sup>(19)</sup>이라  
 顛<sup>(9)</sup>痛<sup>면</sup> 刺手陽明與顛之盛脈<sup>하여</sup> 出血<sup>이라</sup>  
 項痛<sup>(21)</sup>에 不可俛仰<sup>하면</sup> 刺足太陽<sup>하고</sup> 不可以顧<sup>하면</sup> 刺手  
 太陽<sup>也</sup>라

### 【校勘】

- 口中熱: 『甲乙』卷七第一에는 '口熱'로 되어 있다.
- 足少陰: 『甲乙』卷七第一에는 '足少陽'으로 되어 있다.
- 以員利鍼: 『太素』卷三十「膝痛」, 『甲乙』卷七第一에는 '以員利鍼鍼'으로 되어 있다.
- 發而間之: 『太素』卷三十「膝痛」, 『甲乙』卷十第一에

는 '鍼發而間之'로 되어 있다.

- 能言 取手陽明: 周本에는 이 여섯 글자가 없다.
- 瘧不渴: 『太素』卷二十五「十二瘧」에는 '瘧而不渴'로 되어 있다.
- 取足陽明: 『素問·刺瘧篇』, 『太素』卷二十五「十二瘧」에는 '刺足太陽'으로 되어 있다
- 渴而日作: 『素問·刺瘧篇』, 『太素』卷二十五「十二瘧」, 『甲乙』卷七第五에는 '渴而間日作'으로 되어 있다.
- 取手陽明: 『素問·刺瘧篇』, 『太素』卷二十五「十二瘧」에는 '刺足少陽'으로, 『甲乙』卷七第五에는 '取手少陽'으로 되어 있다.
- 齒痛: 『甲乙』卷七第五에는 '齒動痛'으로 되어 있다.
- 聾而不痛者 取足少陽 聾而痛者 取手陽明: 『太素』卷三十「耳聾」, 『甲乙』卷十二第五에는 '聾而不痛 取足少陽 聾而痛 取手陽明'으로 되어 있다.
- 衄而不止 衄血流: 『太素』卷三十「衄血」에는 '衄而不衄血流'로 되어 있다.
- 衄血: 『太素』卷三十「衄血」에는 '衄'로, 『甲乙』卷十二第七에는 '大衄衄血'로, 黃校本에는 '衄血'로 되어 있다.
- 痛上寒: 『素問·刺腰痛篇』, 『甲乙』卷九第八에는 '上寒'으로 되어 있다.
- 取足太陽陽明: 『太素』卷三十「腰痛」에는 '取足太陽'으로 되어 있다.
- 取足少陽: 『太素』卷三十「腰痛」에는 '取足太陽'으로 되어 있다.
- 喜怒: 『甲乙』卷九第五에는 '善怒'로 되어 있다.
- 小: 『太素』卷三十「喜怒」, 『甲乙』卷九第五에는 '少'로 되어 있다.
- 刺足少陽: 『甲乙』卷九第五에는 '刺足少陰'으로 되어 있다.
- 顛: 『太素』卷三十「頰痛」에는 '頰'으로, 『甲乙』卷九第一과 張注本에는 '頰'으로 되어 있다.
- 項痛: 『甲乙』卷九第一에는 '頭項'으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如膠: 입안에 熱이 盛하여 唾液이 阿膠처럼 말라 붙어 있음을 말함.

- (2) 積鼻: 足陽明胃經의 經穴로 무릎바깥에 있다.
- (3) 發而間之: 刺鍼後 一定時間을 지켜보고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刺鍼하라는 말이다.
- (4) 髌: 員利鍼을 形容한 말로 소의 꼬리털처럼 가늘고 길다는 뜻이다.
- (5) 喉痺: 목이 붓고 아파 음식이나 침을 잘 삼키지 못하고 심하면 呼吸障礙까지 오는 病症으로, 대부분 火熱이 盛하고 痰이 壅盛해서 발생한다.
- (6) 淸飲: 冷水를 말함.
- (7) 衄血: 凝結된 피 즉 血塊.
- (8) 宛骨: 手太陽小腸經의 腕骨穴.
- (9) 頰: 頰의 假借字로 귀밑의 턱 부위를 말한다.

【較註】

[1] 噙乾 口中熱如膠 取足少陰

楊·馬·張·景岳·白話解는 “足少陰之脈이 喉嚨을 循行하여 舌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足少陰脈을 취하는 것이다. 목이 마르고 입에 熱이 심하여 침이 阿膠처럼 끈적끈적해 지는 것은 陰氣가 不足한 것이므로 足少陰을 취해서 補해야 한다.”<sup>5)</sup>고 하였다.

[2] 膝中痛 取積鼻 以員利鍼 發而間之 鍼大如 髌 刺膝無疑

楊·馬·張·景岳·黃·白話解는 “이는 膝痛을 치료하는 데에 적절한 經穴과 鍼具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膝中痛에는 足陽明胃經의 積鼻穴을 刺鍼해야 하고 所用되는 鍼은 九鍼中 여섯 번째인 員利鍼이다. 刺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間隔을 두고 살펴보고 거듭 刺鍼을 해야 하니 한번 刺鍼하고 그만 두라는 말이 아니다. 이 鍼은 髌鍼에

서 본을 떠 왔으니, 그 끝이 약간 크고 몸통은 오히려 작아 깊이 刺入할 수 있고 길이가 一寸六分이어서 무릎을 刺鍼하기에 편리하다.”<sup>6)</sup>고 하였다.

[3] 喉痺不能言 取足陽明 能言 取手陽明

楊·馬·張·景岳은 “喉痺는 邪氣가 咽喉部를 閉塞시켜 腫脹과 痛症이 생기는 병이다. 足陽明脈은 喉嚨을 循行하여 結喉의 옆을 끼고 지나간다. 그런데 邪氣로 인해 足陽明脈이 막히면 말을 못하게 되므로 足陽明脈을 취해서 치료해야 한다. 手陽明脈도 結喉 옆으로 지나가기는 하나 足陽明胃經의 바깥쪽으로 지나가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手陽明을 취해서 치료한다.”<sup>7)</sup>고 하였다.

[4] 瘧不渴 間日而作 取足陽明 渴而日作 取手陽明

楊·景岳은 “刺瘧論에 말하길 ‘瘧疾에 渴症이

6) 楊·積鼻는 足陽明脈氣所發이라 故로 膝痛取之라 ○馬: 此는 言膝痛者에 有當刺之穴하고 當用之鍼也라 膝中痛은 取足陽明胃經之積鼻穴以刺之요 其所用之鍼은 則第六曰員利鍼者니 必發其鍼而又間刺之요 非止一刺而已也라 此鍼은 取法於髌鍼이니 微大其末하고 反小其身하여 令可深納하고 長一寸六分하야 刺膝用之而無疑也라 ○張: 按컨대 以上은 乃邪客陰陽之氣而爲氣厥이요 卽有見經證者는 乃邪在氣而迫及於經也라 此以下는 復論邪入於經而經脈之厥逆이라 故로 曰鍼大如髌 刺膝無疑라 九鍼論曰 六者는 律也요 律者는 調陰陽四時而合十二經脈이라하니 라 虛邪客於經絡而爲暴痺者也라 故로 爲之治에 鍼必令尖如髌하고 且圓且銳하며 中身微大하야 以取暴氣라 此邪客於足陽明之經而爲膝中痛者는 當以如髌之鍼而刺膝痛無疑也라 意言邪在氣而致氣厥者는 當取之氣穴이요 邪客於經絡而爲經痛者는 當取之經穴無疑也라 張開之日 暴痺者는 不從氣而轉入이요 乃直中於脈而爲脈痺也라 積鼻는 乃足陽明胃經穴이니 不因於氣라 故로 曰取積鼻而不曰陽明이라 以下取手足之三陽者는 經氣之合病也라 ○景岳: 積鼻는 足陽明經穴이라 發而間之는 謂刺而又刺하야 非一次可已也라 員利鍼義는 如前이니 刺膝用之無疑也라 ○黃: 積鼻는 足陽明穴이라 發而間之는 發鍼而少停也라 ○語譯: 發而間之는 謂刺後稍隔片時再刺라

7) 楊: 手陽明脈은 循臑上頭하고 足陽明脈은 循喉嚨入缺盆이라 故로 喉痺能言 不能言에 取此二脈하야 療主病者也라 ○馬: 此는 言喉痺者는 當審其能言不能言하야 而分經以刺之也라 ○張: 喉痺者는 邪閉於喉而腫痛也라 足陽明之脈이 循喉嚨挾於結喉之傍이라 故로 邪閉則不能言矣니 當取之足陽明이라 手陽明之脈은 在喉旁之次라 故로 能言者는 取手陽明이라 ○景岳: 手足陽明之脈이 皆循喉嚨일세라 能言者는 輕하니 但取之上하고 不能言者는 重하니 當寫其下也라

5) 楊: 足少陰脈至舌下라 故로 口熱取之라 ○馬: 此는 言刺噙乾口熱之法也라 噙乾乾燥하고 口中甚熱하야 其津液如膠之稠면 當取足少陰腎經之穴以補之니 水王則火衰也라 ○張: 夫所謂厥者는 有病在下而氣厥於下者하며 有病在下而氣上逆者하니 如上節之厥氣走喉而不能言은 乃少陰之氣上逆於喉也요 此邪는 病少陰之氣而氣厥於下也라 蓋心腎水火之氣는 上下時交하니 少陰之氣厥逆於下하야 而不上交於心하면 則火熱甚而噙乾하고 口中熱如膠矣라 取足少陰以散逆氣하야 而通水陰之上濟라 ○景岳: 足少陰之脈이 循喉嚨하야 繫舌本일세라 噙乾口熱如膠者는 陰不足也라 故로 當取而補之라 ○白話解: 取足少陰하야 治口內熱睡如膠하니 應取腎經穴太溪라

없고 하루건너 발작하면 足太陽을 취하고, 渴症이 있으면서 하루건너 발작하면 足少陽을 취한다.'고 하였다.”<sup>8)</sup>고 하였고,

馬·張은 “瘧疾을 일으키는 邪氣가 經絡을 따라 안으로 깊이 침범하여 하루건너 한번씩 발작하는 것은 그 邪氣가 인체 깊숙이 침범하여 밖으로 잘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足陽明脈은 胃에 所屬되고 脾에 連絡되는데, 地氣에 應하여 인체 下部에 있어 그 길이 멀기 때문에 하루건너 한번씩 발작하고 地는 陰이기 때문에 渴症이 없는 것이다. 手陽明脈은 大腸에 所屬되고 肺에 連絡되는데, 天氣에 應하여 인체 上部에 있어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날마다 발작하고 天은 陽이기 때문에 渴症이 있는 것이다.”<sup>9)</sup>고 하였다.

[5] 齒痛不惡清飲 取足陽明 惡清飲 取手陽明

楊·馬·張·景岳은 “手足 陽明脈은 모두 齒牙가 운데로 연결된다. 그러나 胃經은 實熱이 많기 때문에 寒飲을 싫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足陽明을 瀉하해야 하고, 大腸經은 虛寒이 많기 때문에 寒飲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手陽明을 補해야 한다.”<sup>10)</sup>고 하였다.

[6] 聾而不痛者 取足少陽 聾而痛者 取手陽明

楊·馬·景岳은 “足少陽脈은 귀 뒤쪽으로 내려가 귀속으로 연결되어 귀 앞으로 나오고 手陽明의 別絡도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痛症의 有無로 補寫를 달리 해야 한다.”<sup>11)</sup>고 하였고,

張은 “手足의 少陽脈은 모두 귀의 앞뒤로 連絡이 되어 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手少陽은 三焦의 相火를 주관하기 때문에 耳聾에 痛症이 겹쳤을 때 手少陽을 택하는 것이다. 手陽明은 手少陽을 잘못 쓴 것이다.”<sup>12)</sup>고 하였다.

[7] 衄而不止 衄血流 取足太陽 衄血取手太陽 不已 刺宛骨下 不已 刺臑中出血

楊·張·景岳·白話解·校釋은 “코에서 出血되는 것을 衄이라고 하고, 피가 부패되고 凝結되어 色이 紫黑色으로 나타나는 것을 衄이라고 한다. 衄血이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오면 출혈이 심한 것이고 아래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衄血은 피가 멎쳐 흐르지 않는 것이다. 출혈이 많을 경우에는 足太陽을 취해야 하고 출혈이 적을 경우에는 手太陽을 취해야 한다. 宛骨下는 手太陽의 腕骨穴이고, 臑中出血은 足太陽의 委中穴이다.”<sup>13)</sup>고 하였고,

8) 楊: 瘧不渴에 取足陽明과 渴에 取手陽明은 皆取所主輸과 平按건대 瘧不渴間日而作 取足陽明이 素問에 作刺足太陽이어늘 本書十二瘧篇同이라 新校正云 按건대 九卷云 足陽明은 太素同하고 檢今本靈樞亦云 取足陽明이라하니 是不渴間日而作之瘧은 可取足太陽陽明二處라 故로 十二瘧楊注에 謂治寒瘧하고 本篇에 謂取所主輸也라하니라 ●景岳: 刺瘧論曰 瘧不渴하고 間日而作하면 取足太陽하고 渴而間日作하면 取足少陽이라하니라  
9) 馬: 此는 言瘧證者는 當審其渴不渴과 間日作하야 而分經以刺之也라 ●張: 瘧氣隨經絡沈以內薄間日而作者는 其氣舍深內薄於陰而不得出이라 足陽明之脈은 屬胃絡脾하니 應地氣之在下하야 其道遠故로 間日而作이요 地爲陰故로 不渴이라 手陽明之脈은 屬大腸絡肺하니 應天氣之在上하야 其道近故로 日作이요 天爲陽故로 渴也라  
10) 楊: 上齒雖痛이나 以足陽明穀氣라 故로 飲不惡冷하니 可取足陽明이라 下齒痛은 取手陽明也라 ○馬: 此는 言齒痛者는 當審其惡冷飲不惡冷飲하야 而分經以刺之也라 胃經은 惡熱不惡寒하고 大腸은 惡寒不惡熱이라 故로 刺之者如此라 ○張: 手足陽明之脈은 徧絡於上下之齒라 足陽明은 主悍熱之氣라 故로 不惡寒飲하고 手陽明은 主清秋之氣라 故로 惡寒飲이라 ●景岳: 手足陽明之脈이 皆入齒中이라 然이나 胃經은 多實熱이라 故로 不畏寒飲者는 當寫足陽明하고 大腸經은 多虛寒이라 故로 畏寒飲者는 當補手陽明也라 ○黃: 清飲은 冷飲也라

11) 楊: 足少陽正經은 入耳하고 手陽明絡脈도 入耳라 足少陽은 主骨益耳라 故로 取之也요 手陽明은 主氣益耳라 故로 痛取之也라 ○馬: 此는 言耳聾者는 當審其痛與不痛하야 而分經以刺之也라 ●景岳: 足少陽之脈은 下耳後하야 支耳中하고 出耳前하며 手陽明之別者도 入耳라 故로 當分痛與不痛而補寫之라  
12) ●張: 手足少陽之脈은 皆絡於耳之前後하야 入耳中호대 手少陽은 秉三焦之相火라 故로 聾而痛이라 手陽明은 當作手少陽이라  
13) 楊: 衄血은 凝血也라 衄는 普蓋反이라 血不凝은 熱甚也 일새라 足太陽起鼻하고 手太陽至目內眥하야 皆因鼻라 故로 衄血取之라 腕骨은 手腕前起骨名完骨이요 非腕也라 ○張: 陽絡傷則衄血이라 手足太陽之脈이 交結於鼻上호대 足太陽主水라 故로 衄血流하고 手太陽主火라 故로 衄血而不流라 此는 邪薄於皮毛之氣分而迫於絡脈也라 故로 取手足太陽以行氣요 不已면 刺手之經脈於腕骨下요 不已면 刺足之經脈於臑中이라 ●景岳: 鼻中出血을 曰衄이요 敗血凝聚하야 色紫黑者를 曰衄라 衄血成流하면 其去多也요 下云衄血은 其聚而不流者也라 血去多者는 當取足太陽하고 去少者는 當取手太陽이라 宛骨下는 卽手太陽之腕骨穴이요 臑中出血은 卽足太陽之委中穴也라 ○白話解: 宛與腕同이라 宛骨下는 就是指手太陽小腸經의 腕骨穴이니 穴在手外側腕前骨下陷中이라 ○校釋: 宛與腕同이라 宛骨下는 指手太陽小腸經의 腕骨穴이라

馬는 “이는 衄血은 出血의 多寡와 治療의 難易度를 살피 經絡을 나누어 刺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대목이다. 코에서 出血되는 것을 衄血이라고 하고, 부패되고 응결되어 그 색이 赤黑色으로 변한 것을 衄라고 한다. 衄血이 줄기를 이루면 출혈이 많아 엉겨 붙지 않으니 足太陽膀胱經을 취해서 刺鍼해야 한다. 腦中出血이라는 것은 膀胱經의 委中穴을 말한다. 衄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줄기를 형성하지 않아 출혈이 적으니 手太陽小腸經穴을 취해서 刺鍼해야 한다. 腕骨下는 手少陰心經의 通里穴이니 心과 小腸은 表裏가 되기 때문이다.”<sup>14)</sup>고 하였으며,

黃은 “衄血은 血塊이다. 宛骨은 耳後高骨이다.”<sup>15)</sup>고 하였다.

[8] 腰痛 痛上寒 取足太陽陽明 痛上熱 取足厥陰 不可以俛仰 取足少陽 中熱而喘 取足少陰 腦中血絡

楊은 “腰痛部位에 熱이 있을 때에는 허리를 補해야 하니 足太陽과 足陽明脈이 여기에 해당되고, 腰痛部位에 寒氣가 있을 때에는 허리를 寫해야 하니 足厥陰脈이 여기에 해당된다. 足少陽은 기를 주관하니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경우에는 足少陽經을 취한다. 腰痛이 있으면서 內熱과 氣喘이 함께 오면 足少陰과 委中穴에서 出血시켜야 한다.”<sup>16)</sup>고 하였으며,

馬·張은 “足太陽, 陽明, 少陽, 厥陰脈은 다 腰脊을 循行하여 上行한다. 그 중 太陽과 陽明은 寒水와 淸金의 氣를 주관하기 때문에 腰痛부위가 시린 경우에는 足太陽과 陽明을 취한다. 厥陰은 風木의 氣를 주관하되 中氣인 少陽火를 따라 변

화하기 때문에 腰痛부위에 熱이 있을 때는 足厥陰을 취한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경우에는 少陽經이 지도리 役割을 담당하기 때문에 少陽經을 취하는 것이다. 足少陰脈中 上行路線은 膈膜을 관통하고 胸中으로 注入되어 肺로 들어가고 心에 연락이 되며, 下行路線은 陰股內廉을 循行하여 비스듬히 腦中으로 들어간다. 中熱而喘은 下部에서 氣가 厥逆되어 위로 心과 交流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足厥陰과 腦中血絡을 취한다.”<sup>17)</sup>고 하였으며,

景岳은 “上寒과 上熱은 다 體表를 이야기한 것이다. 허리가 시린 경우에는 陽經을 刺鍼하여 陽分의 陰邪를 제거하고, 熱이 날 경우에는 厥陰을 刺鍼하여 陰中の 風熱을 제거해야 한다. 少陽脈이 양 옆구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허리를 잘 펴지 못하는 증세에 쓰는 것이다. 속에서 熱이 나고 숨이 찬 것은 熱이 中上 二焦에 있는 것이다. 足少陰을 취하는 것은 壯水하여 火氣를 制壓하는 것이고, 腦中血絡이라는 것은 足太陽 委中穴이니 이를 취하면 寫火시킬 수 있다.”<sup>18)</sup>고 하였다.

[9] 喜怒而不欲食 言益少 刺足太陰 怒而多言 刺足少陽

楊·馬·景岳은 “화를 잘 내고 飲食을 먹지 못하며 말수가 적어지는 것은 脾臟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니 足太陰을 刺鍼하여 補해야 하고, 화를 내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肝膽의 邪氣가 實한 것이기 때문에 足少陽을 刺鍼하여 寫해야 한다

14) ●馬: 此는 言衄血者는 當審其血之多寡病之難易하여 而分經以刺之也라 鼻中出血을 曰衄血이라 至敗惡凝聚하여 其色赤黑者를 曰衄라 衄血成流하면 則血去多而不止於衄血也니 當取足太陽膀胱經以刺之라 其腦中出血은 仍是膀胱經之委中穴也라 若止曰衄血하면 則不成流而去之似少也니 當取手太陽小腸經穴以刺之라 其腕骨下는 卽手少陰心經之通里穴이니 正以心與小腸爲表裏也라

15) ●黃: 衄血은 血塊也라 宛骨은 耳後高骨也라

16) ●楊: 腰痛上熱엔 補當腰니 足太陽陽明脈이요 腰痛上寒엔 寫當腰니 足厥陰脈이라 足少陽은 主機하니 不可俛仰에 取足少陽이라 腰痛中熱如喘氣動엔 可取足少陰郄中出血也라

17) 馬: 此는 言腰痛者는 當審其痛處之冷熱 及不可以俛仰하여 而分經以刺之也라 此는 言刺熱喘之法也라 足少陰은 腎經也요 腦中血絡은 足太陽膀胱經委中穴也라 ●張: 足太陽陽明少陽厥陰之脈은 皆循腰脊而上行이라 太陽陽明은 主寒水淸金之氣라 故로 痛上寒者는 取足太陽陽明이라 厥陰은 風木主氣로되 秉中見少陽之火化라 故로 痛上熱者는 取足厥陰이라 不可以俛仰者는 少陽之樞折也라 故로 取之少陽이라 足少陰之脈上行者는 貫膈注胸中하여 入肺絡心하고 下行者는 循陰股內廉하여 斜入腦中이라 中熱而喘者는 厥逆於下而不得上交於心이라 故로 取足厥陰腦中血絡이라

18) ●景岳: 上寒上熱은 皆以上體言也라 寒刺陽經하여 去陽分之陰邪하고 熱刺厥陰하여 去陰中之風熱也라 少陽脈이 行身之兩側이라 故로 俛仰不利者는 當刺之라 中熱而喘은 熱在中上二焦也라 取足少陰者는 壯水以制火也요 腦中血絡은 卽足太陽委中穴이니 取之면 可以寫火라

.”19)고 하였고,

張은 “이 문장은 陰陽, 喜怒, 飲食, 居處 등 內因으로 형성된 厥逆雜病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갑자기 기뻐하면 心을 傷하고 갑자기 화를 내면 肝을 상하게 된다. 飲食에서 나온 氣는 胃로 들어가 心과 肝으로 그 精微가 퍼져 가는데, 食飲을 절제하지 못하면 肝과 心의 氣가 逆亂되기 때문에 飲食을 잘 먹지 못한다. 暑는 長夏를 주관하니, 肝心의 氣가 逆亂되면 中氣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수가 적어지니 이때에는 足太陰을 취하여 脾氣를 疏通시켜야만 飲食이 잘 轉輸되어 音聲이 우렁차게 된다. 肝은 言語를 주관하고 情志에 있어서는 怒를 管掌하니, 화를 내면서 말을 많이 하면 厥陰의 氣가 매우 逆亂된다. 그러므로 中氣인 少陽을 취하여 厥陰의 氣를 疏通시키는 것이다.”20)고 하였다.

[10] 顛痛 刺手陽明與顛之盛脈出血

楊·馬·張은 “이는 顛痛을 刺鍼하는 方法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手陽明은 商陽穴이고, 顛之盛脈이라는 것은 胃經의 頰車穴이다.”21)고 하였고,

景岳은 “顛은 曲鬢 앞의 兩쪽 太陽穴이다. 手陽

19) 楊: 怒는 肝木也요 食은 脾土也이늘 今木剋土라 故로 怒不欲食하니 宜補足太陰이라 肝足厥陰은 怒也요 足少陽은 多言也라 故로 寫少陽也라 ○馬: 此는 言善怒者는 當審其欲食不食과 難言多言하야 而分經以刺之也라 ●景岳: 善怒而不欲食하고 言益小者는 傷其脾也라 故로 當刺足太陰而補之요 怒而多言者는 肝膽邪實也라 故로 當刺足少陽而寫之라

20) ●張: 此下는 論陰陽喜怒飲食居處而成內因厥逆之雜病也라 暴喜傷心하고 暴怒傷肝이라 食氣入胃하야 散精於心 肝호대 食飲不節하면 肝心氣逆이라 故로 不欲食也라 音主長夏하니 肝心氣逆則中氣不舒라 故로 言益小也니 當取足太陰하야 以疎脾氣則食氣得以轉輸而音聲益彰矣라 肝主語而在志爲怒하니 怒而多言하면 厥陰之逆氣太甚이라 故로 當取中見之少陽하야 以疎厥陰之氣라

21) 楊: 手陽明이 上頸貫頰이라 故로 頰痛에 皆取之라 ●馬: 此는 言刺顛痛之法也라 手陽明은 當是商陽穴이요 顛之盛脈은 是胃經頰車穴이라 ○張: 此는 言手足陽明之經氣厥逆하면 皆能爲顛痛也라 手陽明之脈은 從缺盆으로 上頸貫頰하고 足陽明之氣는 上走空竅하야 循眼系하야 出頰下客主人하고 循牙車하야 合陽明하야 并下人迎이라 顛在頰之下 人迎之上하니 此病은 陽明之氣가 下合陽明之經而爲顛痛이라 故로 不曰足陽明而曰顛之盛脈하니 蓋氣逆於顛而致脈盛也라

明의 別絡은 귀로 들어가 宗脈에 합하여 지고 兩쪽 太陽穴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刺鍼하는 것이다. 與顛之盛脈出血이라는 것은 太陽穴부근의 血絡이다.”22)고 하였다.

[11] 項痛 不可俛仰 刺足太陽 不可以顛 刺手太陽也

楊·馬·張·景岳은 “머리를 앞뒤로 수그렸다 폈다를 못하는 것은 痛症이 뒷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足太陽經을 刺鍼해야 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은 痛症이 목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手太陽經을 刺鍼해야 한다.”23)고 하였다.

【考察】

1. ‘顛’이 『太素』卷三十「領痛」에는 ‘領’으로, 『甲乙』卷九第一과 張注本에는 ‘領’으로 되어 있는데, ‘顛’과 ‘領’은 모두 ‘領’의 音을 假借한 글자로 보인다. ‘領’은 귀밑의 曲骨을 말하며 耳下腺이 위치한 곳이다.

2. “聾而不痛者 取足少陽 聾而痛者 取手陽明”의 구절에 있어 經絡의 遊走로 볼 때 足少陽正經이 귀로 들어가고 또 手陽明別絡이 귀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 耳聾을 치료할 수 있다. 痛症의 有無로 治療經絡을 달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諸家들도 分明한 理由를 제시하지 않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臨床上으로는 寒熱虛實을 구분하여 治療經絡을 결정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內經文句라고 하여 지나치게 拘碍함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張은 手陽明은 手少陽을 잘못 쓴 것으로 보고, 手少陽

22) ●景岳: 顛은 鬢前兩太陽也라 手陽明之別者는 入耳하야 合於宗脈하고 正出兩顛之間이라 故로 當刺之라 與顛之盛脈出血은 卽鬢前之血絡이라

23) 楊: 足太陽脈行項이라 故로 不可俛仰에 取之요 手太陽脈行項左右라 故로 不得顛取之라 ○馬: 此는 言項痛者는 當審其不可俛仰 不可顛하야 而分經以刺之也라 按컨대 俛仰은 屬背與腰라 故로 曰足太陽이요 而顛則屬肩與項이라 故로 曰手太陽也라 ○張: 手足太陽之脈은 皆循項而上이라 故로 能爲項痛이라 足太陽之脈이 挾脊抵腰中이라 故로 不可俛仰者는 取足太陽하고 手太陽之脈이 繞肩胛이라 故로 不可以顛者는 取手太陽也라 ●景岳: 不可俛仰者는 痛在項後라 故로 當刺足太陽經이요 不可以顛者는 痛在頸側이라 故로 當刺手太陽經也라

이 三焦相火를 주관하므로 耳聾에 痛症이 있을 때 쓴다고 하였으나, 痛症이 있다고 手少陽經만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衄而不止 衄血流 取足太陽 衄血取手太陽 不已 刺宛骨下 不已 刺腦中出血”의 문구에서 衄血은 코피, 衄血은 코피가 엉겨 붙어 덩어리진 것을 말하는데 大部分의 注家들은 衄血이 생기는 原因을 火熱로 보았다. 따라서 足太陽膀胱經은 水를 주관하므로 膀胱經은 補하고, 手太陽小腸經은 火를 주관하므로 瀉해야 한다고 하였다. 宛骨下는 大部分의 注家들은 腕骨로 보았으나, 馬는 心經의 通里穴로, 黃은 耳後高骨 즉 完骨로 보고 있어 의견이 다양하므로 臨床的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腰痛上寒 取足太陽陽明 痛上熱 取足厥陰”의 문구에서 허리가 시린 경우에는 足太陽과 足陽明을 취하고, 熱이 날 때에는 足厥陰을 취하는 이유에 대하여 張은 太陽은 寒水, 陽明은 清金의 氣를 주관하기 때문에 허리가 시린 경우에는 足太陽과 陽明을 취하고, 厥陰은 中氣인 少陽相火를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허리에 熱이 있을 때는 足厥陰을 취한다고 하였고, 景岳은 허리가 시린 경우에는 陽經을 刺鍼하여 陽分의 陰邪를 제거하고, 熱이 날 경우에는 厥陰을 刺鍼하여 陰中の 風熱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經絡이 갖고 있는 經氣의 多少나 性質로 그 治療機轉을 설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張처럼 六氣論의 經脈의 效用을 파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쉽게 結論낼 수 없는 難題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中熱而喘 取足少陰 腦中血絡”을 楊·校釋 語譯은 腰痛의 한 증상으로, 馬·張·景岳은 喘息으로 보고 있는데, 治療點을 足少陰經과 腦中(委中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腰痛의 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5. “喜怒而不欲食 言益少 刺足太陰 怒而多言 刺足少陽”의 文句中 “喜怒”를 보통 “善怒”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張만은 글자 그대로 喜怒로 해석하고 있다. 문장 전체의 의미로 관찰해 보면 善怒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治療機轉의 해

석에 있어서도 張은 六氣論과 標本中氣論으로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6. “顛痛 刺手陽明與顛之盛脈出血”의 文句中 ‘顛’을 景岳은 太陽穴部位로 해석하고 있는데 고찰 1번에서와 같이 顛은 頤의 假借字로 아래턱 부위의 뺨을 말한다.

#### 【直譯】

목이 마르고 입에서 熱이나 침이 아교처럼 말라 있으면 足少陰을 取해야 한다.

무릎이 아프면 犢鼻를 取하되 員利鍼을 사용해야 하고 刺鍼後에는 경과를 보아 間隔을 두고 다시 刺鍼해야 한다. 鍼의 크기가 소의 꼬리털 같으므로 무릎을 刺鍼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咽喉에 말을 못하면 足陽明을 取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 手陽明을 取해야 한다.

痞疾에 渴症이 없고 하루건너 발작하면 足陽明을 取하고, 渴症이 있으면서 날마다 발작하면 手陽明을 取해야 한다.

齒痛에 清飲을 싫어하지 않으면 足陽明을 取하고, 清飲을 싫어하면 手陽明을 取해야 한다.

耳聾에 痛症이 없는 경우는 足少陽을 取하고, 痛症이 있는 경우는 手陽明을 取해야 한다.

衄血이 그치지 않아 줄줄 흘러내리면 足太陽을 取하고, 衄血이 된 경우에는 手太陽을 取하되 낫지 않으면 宛骨下를 刺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腦中을 刺鍼하여 出血시켜야 한다.

腰痛에 허리가 시리면 足太陽과 陽明을 取하고, 熱이 나면 足厥陰을 取하며, 허리를 펴지 못하면 足少陽을 取하고, 속에 熱이 있고 氣喘의 증세가 있으면 足少陰과 腦中の 血絡을 取해야 한다.

화를 잘 내고 飲食을 먹지 않으려 하며 말수가 적어지면 足太陰을 刺鍼하고, 화를 내면서 말을 많이 하면 足少陽을 刺鍼해야 한다.

顛痛에는 手陽明과 아래턱 뺨의 盛脈을 취하여 出血시켜야 한다.

項痛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 足太陽을 刺鍼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못하면 手太陽을 刺鍼

해야 한다.

### 第三節. 腹滿三證의 刺法

#### 【原文】

小腹<sup>1)</sup>滿大<sup>2)</sup>上走胃<sup>2)</sup>至心<sup>3)</sup>浙浙<sup>3)</sup>身時寒熱<sup>4)</sup>小便不利<sup>4)</sup>取足厥陰<sup>4)</sup>이라

腹滿<sup>5)</sup>하고 大便不利<sup>5)</sup>하며 腹大<sup>6)</sup>하여 亦<sup>4)</sup>上走胸噎<sup>5)</sup>하고 喘息<sup>5)</sup>喝喝然<sup>2)</sup>하면 取足少陰<sup>5)</sup>이라

腹滿<sup>6)</sup>하고 食不化<sup>7)</sup>하여 腹<sup>7)</sup>嚮嚮然<sup>8)</sup>하고 不能大便<sup>8)</sup>하면 取足太陰<sup>9)</sup>이라

#### 【校勘】

- 1) 小腹: 『太素』卷三十「刺腹滿數」와 『甲乙』卷九第九에는 '少腹'으로 되어 있다.
- 2) 胃: 『甲乙』卷九第九에는 '胸'으로 되어 있다.
- 3) 浙浙: 『太素』卷三十「刺腹滿數」에는 '泝泝'로, 『甲乙』卷九第九에는 '索索然'으로 되어 있다.
- 4) 亦: 『太素』卷三十「刺腹滿數」와 『甲乙』卷九第七에는 이 글자가 없다.
- 5) 喘息: 『甲乙』卷九第七에는 이 글자가 없다.
- 6) 取足少陰: 『甲乙』卷九第七에는 '取足少陽'으로 되어 있다.
- 7) 腹: 『甲乙』卷九第七에는 이 글자가 없다.
- 8) 不能大便: 『太素』卷三十「刺腹滿數」에는 '不便'으로, 『甲乙』卷九第七에는 '不得大便'으로 되어 있다.
- 9) 取足太陰: 『甲乙』卷九第七에는 '取足太陽'으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浙浙: 寒氣가 들어 몸을 오싹오싹 떠는 모양.
- (2) 喝喝然: 喘息聲으로 숨을 헐떡이는 소리.

#### 【較註】

[1] 小腹滿大 上走胃至心 浙浙身時寒熱 小便不利 取足厥陰

楊·馬·張·景岳·黃·白話解·校釋은 “浙浙은 추위를 느껴 몸을 움츠리는 모습이다. 肝經脈이 小腹에 이르고 胃를 끼고 지나가며 그 別絡이 肝에서

부터 橫膈膜을 관통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病症이 나타나니 이때에는 足厥陰經을 취하여 刺鍼해야 한다.”<sup>24)</sup>고 하였다.

[2] 腹滿 大便不利 腹大 亦上走胸噎 喘息喝喝然 取足少陰

楊·馬·張·景岳·黃·白話解·校釋은 “腎은 胃의 機能을 管掌하는 關門이고 前陰과 後陰의 正常與否를 맡고 있는데, 腹脹滿과 大便不利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腎氣가 逆亂되어 關門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또한 足少陰脈은 위로 肝과 膈膜을 관통하여 肺中으로 들어가고 喉嚨을 循行하니, 腎氣가 逆亂되면 經脈에 까지 그 영향이 파급된다. 그러므로 또한 위로 가슴과 목에까지 氣가 치밀어 올라 숨이 차 헐떡거리게 되니, 이는 少陰經의 氣逆으로 생긴 것이다.”<sup>25)</sup>고 하였다.

24) 楊: 水氣聚於少腹하여 上走至於心下하여 泝泝惡寒熱하고 小便不利는 下熱也니 是足厥陰所由라 故로 取其輪穴也라 ○馬: 此는 言小大腹滿者는 當審其諸證하여 而分經以刺之也라 小腹滿者는 小腹也요 腹滿者는 大腹也라 小腹滿者는 小便不利하고 大腹滿者는 大便不利라 小腹滿者는 其滿大가 上走胃至心하야 不及胸噎也요 身若浙浙然하며 時發寒熱하니 當取足厥陰以刺之라 ○張: 此는 三陰之厥逆於下而皆能爲腹滿也라 口問篇曰 夫百病之始生也는 皆生於風雨寒暑 陰陽喜怒 飲食居處 大驚卒恐하니 則血氣分離하야 陰陽破散커나 經絡厥絕하야 脈道不通커나 陰陽相逆하야 血氣不次하야 乃失其常이라하니 如驚怒則傷足厥陰肝하고 卒恐則傷足少陰腎하고 飲食不節則傷足太陰脾하고 臟氣傷則經絡厥絕하야 脈道不通而皆能爲腹滿也라 足厥陰肝脈은 抵小腹하고 挾胃하야 上貫膈하니 厥陰之經脈厥逆이라 故로 小腹滿大하고 厥氣上逆則走胃至心이라 厥陰者는 陰極而一陽初生이라 故로 身浙浙然時有寒熱之變이라 肝主疏泄하니 小便不利者는 厥陰之氣逆也라 ●景岳: 浙浙은 寒肅貌라 肝經之脈이 抵小腹하야 挾胃하고 其支者가 從肝으로 別貫膈이라 故로 爲病如此니 當取足厥陰經以刺之라 ○黃: 小腹滿大 上走胃至心 浙浙身時寒熱 小便不利는 肝氣鬱陷하고 膽氣鬱升하야 乙木不能疏泄水道也라 ○白話解: 浙浙은 形容深栗怕冷的樣子라 ○校釋: 浙浙은 惡寒的樣子라

25) 楊: 此皆足少陰脈所行之處라 故로 取其脈之輪穴이라 有本少陰爲少陽이라 ○馬: 大腹滿者는 其滿大가 亦上走胸噎하고 不止胃與心也라 故로 喘息喝喝然하니 此則當取足少陰腎經以刺之라 ●張: 夫腎者는 胃之關也요 開竅於二陰이어늘 腹脹滿而大便不利者는 腎氣逆而關門不利也라 足少陰之脈은 上貫肝膈하야 入肺中하고 循喉嚨하니 氣逆則及於經이라 故로 亦上走胸噎而喘息喝喝然하니 此少陰之氣逆也라 ○景岳: 腎이 開竅於二陰하고 其經脈이 從腎으로 上貫肝膈하야 入肺中하고 循喉嚨이라 故로 其爲病如此니 當取足少陰經以刺之라 喝喝은 喘急貌라 ○

[3] 腹滿食不化 腹嚮嚮然 不能大便 取足太陰  
楊·馬·張·景岳·黃은 “脾臟이 자기 고유의 職能  
을 잃어버리면 飲食이 消化되지 못하여 腹滿과  
腸鳴이 있게 되고 氣가 中焦에 停滯되어 大便이  
不調해 지게 되니, 足太陰經을 취하여 刺鍼해야  
한다.”<sup>26)</sup>고 하였다.

### 【考察】

本 句節에서 논하고 있는 小腹滿은 下腹部의  
脹滿을, 腹滿은 上腹部의 脹滿을 말한다. 下腹部  
의 脹滿은 經絡上 厥陰經과 關係가 있으므로 大  
부분의 注家들이 厥陰肝氣가 逆亂되어 下腹部에  
病症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下腹  
部의 脹滿은 小便不利가 그 특징이다. 上腹部의  
脹滿中 少陰經을 刺鍼해야 할 證候와 太陰經을  
刺鍼해야 할 證候에서 呼吸器系에 까지 證候가  
나타난 것은 腎氣의 厥逆이고, 消化器系에 主症  
狀이 보이면 이는 脾氣의 厥逆이다. 共通的으로  
보이는 증상은 腹滿과 大便不利이다.

### 【直譯】

小腹이 滿大하여 위로 胃部와 心下에 까지 치  
밀어 오르며 몸이 오싹오싹 추우면서 때로 寒熱  
이 나고 小便이 不利하면 足厥陰을 취해야 한다.

腹滿과 大便不利가 있고 배가 脹滿되어 위로  
가슴과 목에까지 치밀어 오르고 숨이 차 헐떡거  
리면 足少陰을 取해야 한다.

腹滿이 있고 飲食이 소화되지 않아 배에서 소

黃: 腹滿 大便不利 上走胸噎 喘息喝喝者는 水泛土濕하여  
邪衝肺部也라 ○白話解: 喝喝은 是因喘促氣粗而發出的一  
種聲音이라 ○語譯: 喝喝은 喘促之聲이라

- 26) 楊: 腹滿食不化와 腹虛脹不大便是 皆足太陰脈所主라 故  
로 取之輸穴也라 ○馬: 又有大腹滿者는 其所食不化하여  
腹中響響然布氣하니 此當取足太陰脾經以刺之라 然이나  
大腹滿者는 其大便不利則一也라 ○張: 足太陰은 主輸運  
水穀하니 脾氣厥逆이라 故로 腹滿而食飲不化라 足太陰  
是動則病腹脹善噎라 得後氣則快然如衰라 腹響響然不  
能大便者는 氣逆於中也라 故로 當取足三陰之經하여 以  
通厥逆之氣也라 ●景岳: 脾失其職則食不能化하여 腹滿而  
鳴하고 氣滯於中하여 大便不調하니 當取足太陰經以刺之  
라 ○黃: 腹滿食不化 腹嚮嚮然 嚮嚮은 氣不調也라 不能  
大便은 土濕脾鬱也라

리가 나며 大便을 잘 보지 못하면 足太陰을 取해  
야 한다.

## 第四節. 心痛六證의 刺法

### 【原文】

心痛에 引腰脊하고 欲嘔하면 取足少陰이라

心痛腹脹하며 嗔嗔然<sup>1)</sup> 大便不利하면 取足太陰이라

心痛에 引背不得息하면 刺足少陰하고 不已면 取手少陽<sup>2)</sup>이라

心痛에 引小腹滿<sup>3)</sup>하고 上下無常處<sup>4)</sup>하며 便澀難하면 刺足  
厥陰이라

心痛에 但短氣不足以息하면 刺手太陰이라

心痛엔 當九節刺之<sup>5)</sup>로되 按하고 已刺按之면 立已<sup>6)</sup>요 不  
已면 上下求之하여 得之立已라

### 【校勘】

- 1) 嗔嗔然: 『甲乙』卷九第七과 『千金』卷十三第六에는  
'濇濇然'으로 되어 있다.
- 2) 手少陽: 『甲乙』卷九第二와 『千金』卷十三第六에는  
'手少陰'으로 되어 있다.
- 3) 心痛 引小腹滿: 『太素』卷二十六厥 心痛'에는 '心  
痛 小腹滿'으로 되어 있다.
- 4) 上下無常處: 馬注本, 張注本에는 '上下無定處'로  
되어 있다.
- 5) 當九節刺之: 胡本, 熊本, 周本, 統本, 金陵本, 藏本,  
張注本에는 '當九節次之'로 되어 있다.
- 6) 按已刺 按之立已: 『太素』卷二十六厥 心痛'에는  
'不已 刺按之 立已'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嗔嗔然: 嗔은 『甲乙』의 記載가 精確한 것으로 보  
인다. 嗔은 濇의 假借字이고, 濇은 鬱滯의 뜻이 있  
으므로 嗔嗔然은 大便이 不利해서 膨滿되어 있는  
모양을 형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九節: 胸椎九椎下의 筋縮(督脈)이나 그 옆의 肝  
俞, 魂門(膀胱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上下求之: 學者에 따라 견해가 다양한데, 肝輸와  
筋縮穴 위아래의 背腧穴, 위는 八椎下(至陽) 아래  
는 十椎下(中樞), 위는 膈俞옆의 膈關 下는 膈俞옆

의 陽綱, 위는 手經 아래는 足經 등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筋縮穴의 위아래에 분포된 穴로 해석한다.

【較註】

[1] 心痛引腰脊欲嘔 取足少陰

楊·馬·張·景岳은 “心痛이 있으면서 뒤로 腰脊에까지 痛症이 放散되고 앞으로 嘔逆症勢가 있는 경우는 腎邪가 위로 逆亂된 것이니, 足少陰經을 취해서 刺鍼해야 한다.”<sup>27)</sup>고 하였다.

[2] 心痛腹脹 嗃嗃然大便不利 取足太陰

楊·張은 “嗃嗃은 寒氣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太陰은 陰中之 至陰이 되는데, 陰寒하기 때문에 腹痛이 있으면서 으슬으슬 추운 것이고 大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土氣가 化生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足太陰의 氣가 厥逆되어 心痛이 된 것이기 때문에 本經을 取해서 逆亂된 氣運을 疏通시켜야 한다.”<sup>28)</sup>고 하였고,

馬·景岳·黃·白話解는 “嗃嗃은 鬱滯된 모양이다. 이 病의 原因은 脾에 있기 때문에 足太陰經을 취해서 刺鍼해야 한다.”<sup>29)</sup>고 하였다.

[3] 心痛 引背不得息 刺足少陰 不已 取手少陽

楊·馬·張·景岳은 “足少陰脈이 脊部를 貫通하여 지나가기 때문에 痛症이 등에까지 이어지고 手少陽脈이 胸中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숨을 잘 못

쉬는 것이니 이 二經을 刺鍼해야 한다.”<sup>30)</sup>고 하였고,

黃은 “足少陰脈은 腰脊을 貫通하고 있다. 心痛이 腰와 脊背에까지 미치는 것은 水가 火를 克伐한 것이므로 足少陰을 刺鍼하여 水를 瀉하고 手少陽을 取하여 火를 도와야 한다.”<sup>31)</sup>고 하였다.

[4] 心痛 引小腹滿 上下無常處 便澁難 刺足厥陰

楊·馬·張·景岳·黃은 “心痛이 있는 사람이 그 痛症이 小腹에까지 及급되어 脹滿되고 痛症이 위아래로 오르내려 定處가 없으며 大小便을 보기가 어려우면 이곳은 足厥陰肝經이 遊走하는 곳이므로 足厥陰肝經을 取하여 刺鍼해야 한다.”<sup>32)</sup>고 하였다.

[5] 心痛 但短氣不足以息 刺手太陰

楊·馬·張·景岳은 “肺는 氣를 主管하여 呼吸을 맡고 있으므로 短氣症이 있을 경우에는 手太陰을 刺鍼해야 한다.”<sup>33)</sup>고 하였다.

27) 楊: 足少陰脈이 行腰脊하야 上至心이라 故로 心痛引腰脊欲嘔에 取少陰脈輸穴也라 ○馬: 此는 言心痛者는 當審其諸證而分經以刺之也라 有心痛者가 其痛後則引之於腰脊하고 前則欲嘔하면 當取足少陰腎經以刺之라 ○張: 腰脊은 腎之外腑也라 腎與胃戊癸合化라 心痛引腰脊而欲嘔者는 腎氣上逆而爲心痛也니 當取之足少陰이라 ●景岳: 心痛而後引腰脊하고 前則欲嘔者는 此腎邪上逆也라 故로 當取足少陰經以刺之라

28) 楊: 足太陰脈主腹이라 故로 取足太陰輸穴이라 嗃嗃은 惡寒之兒也라 ●張: 嗃嗃은 畏寒貌라 太陰爲陰中之至陰이니 陰寒故로 腹痛而嗃嗃然이요 大便不化者는 土氣不化也니 此足太陰之氣厥而爲心痛이라 故로 當取本經以疎逆氣라

29) 馬: 有心痛者가 其腹中脹滿하야 嗃嗃然하고 大便爲之不利하면 當取足太陰脾經以刺之라 ●景岳: 嗃嗃은 滯貌라 此病在脾라 故로 當取足太陰經以刺之라 ○黃: 心痛 腹脹 嗃嗃然 大便不利는 脾土濕陷也라 ○白話解: 嗃嗃은 在這里是形容腹內澁滯不通이라

30) 楊: 足少陰脈이 貫脊絡心하고 手少陽脈이 主三焦氣라 故로 心痛引背不得息에 取此二經輸穴하야 療主病者也라 ○馬: 有心痛者가 其痛이 後引至背하고 前則不得喘息하면 當取足少陰腎經以刺之요 如不已면 又取手少陽三焦經以刺之라 ○張: 腎脈은 從腎貫膈하야 入肺中하고 出絡心이라 心痛에 引背不得息은 少陰之經脈이 厥逆於上而爲心痛也라 故로 當刺足少陰이라 不已者는 腎臟之氣逆也라 少陽屬腎하야 三焦之氣가 發源於腎臟하야 上布於胸中이라 故로 當取手少陽以瀉腎氣之逆이라 ●景岳: 足少陰之脈貫脊이라 故로 痛引於背하고 手少陽之脈이 布胸中이라 故로 不得息이니 宜刺此二經也라

31) ●黃: 足少陰脈은 貫腰脊이라 心痛引腰脊者는 水剋火也니 刺足少陰以瀉水하고 取手少陽以益火라

32) 楊: 足厥陰脈이 環陰器抵小腹이라 故로 少腹滿便澁難에 取此脈輸穴하야 所主病者라 ●馬: 有心痛者가 其痛引至小腹而滿하고 或上或下하야 痛無定處하며 大小便皆難하면 當取足厥陰肝經以刺之라 ○張: 足厥陰肝脈은 抵小腹하야 別貫膈하야 上注肺하니 心痛에 引小腹滿者는 厥陰之經絡이 上逆也요 上下無常處 澁便難者는 厥陰之氣逆也라 此는 經氣并逆이니 當刺足厥陰之經하야 經脈通則氣亦疎利矣라 ○景岳: 足厥陰之脈이 抵小腹하고 結於陰器하니 凡心痛而下引小腹者는 當刺之也라 ○黃: 心痛 引小腹滿 上下無常處 便澁難은 肝脈澁陷也라

33) 楊: 手太陰이 主於氣息이라 故로 氣短息不足에 取此脈하야 療主輸穴이라 ○馬: 有心痛者가 短氣不足以息하면 當取手太陰肺經以刺之라 ○張: 肺主氣而司呼吸하고 心系上連於肺하니 心痛에 但短氣不足以息者는 但逆在肺而爲心痛也니 當刺手太陰以通肺氣之逆이라 夫足太陰少陰厥陰而爲心痛者는 臟氣上逆而爲痛也라 肺乃心之蓋라 故로 但短氣不足以息이니 此病在本臟而應於心也라 四臟皆然

[6] 心痛 當九節刺之 按 已刺按之 立已 不已 上下求之 得之立已

楊은 “明堂에 第九節下의 兩傍은 肝輸이고 中央은 筋縮이라고 되어 있으나 心痛을 치료한다는 말은 없다. 이 經絡에서 치료한다고 말한 것은 이 部位를 刺鍼해서 낫지 않을 때에는 그 위아래의 背腧穴을 찾아 心痛을 치료하라는 말이다.”<sup>34)</sup>고 하였고,

馬는 “心痛에 背部의 第九節을 刺鍼하라고 한 것은 督脈의 筋縮穴이니, 먼저 침 자리를 按摩한 다음에 침을 놓고 침을 놓은 다음 또 안마하면 그 痛症이 바로 나올 것이고, 만일 낫지 않으면 위로는 八椎 그리고 아래로는 十椎에서 다시 求하면 그 痛症이 반드시 낫는다.”<sup>35)</sup>고 하였으며,

張은 “次라는 것은 俞穴의 옆이니, 九節의 옆이라는 것은 肝俞옆의 魂門穴이다. 肝臟의 魂과 心臟의 神은 相互 도와 往來와 出入을 하고 있기 때문에 魂門을 취하여 心氣를 通하게 하는 것이다. ‘按已而刺’라는 것은 出鍼하고 난 뒤 다시 按摩하여 氣를 引導하여 疏通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心痛이 바로 낫는다. 九節의 위는 膈俞옆의 膈關이고 下는 膽俞옆의 陽綱이니, 心氣가 안의 膈膜으로부터 밖으로 통하기 때문에 위에서 구하여 心神을 통하게 하고 아래에서 구하여 魂氣를 舒暢시키는 것이다. 得之라는 것은 그 氣를 얻는 것이다.”<sup>36)</sup>고 하였고,

이라 故로 無眞心痛之死證이나 然이나 五種心痛은 因臟氣之上乘而爲痛也라 ●景岳: 肺主氣라 故로 短氣者는 當刺手太陰이라

34) ●楊: 明堂에 第九節下兩傍은 是肝輸요 中央은 是筋縮이나 皆不言療心痛이라 此經言療取之는 刺此節不已에 於上下背腧尋之하야 有療心痛取之라

35) ●馬: 有心痛者 其痛當背第九節以刺之는 乃督脈筋縮穴之處也니 宜先按之하야 按已而刺하고 刺後按之하면 其痛當立已요 如不已則上而八椎와 下而十椎하야 又復求之면 其痛必立已矣라

36) ●張: 次者는 俞穴之旁也니 九節之次者는 肝俞次旁之魂門也라 肝臟之魂과 心臟之神은 相隨而往來出入이라 故로 取之魂門하야 以通心氣라 按已而刺는 出鍼而復按之하야 導引氣疏通이라 故로 心痛立已라 九節之上은 乃膈俞旁之膈關이요 下는 乃膽俞次之陽綱이니 心氣從內膈而通於外라 故로 不已에 當求之上以通心神하고 求之下以舒魂氣라 得之者는 得其氣也라

景岳·白話解는 “이는 心痛을 刺鍼하는 方法을 總括하여 말한 것이다. 九節은 督脈의 筋縮穴이니, 먼저 침 자리를 문지르고 난 뒤 刺鍼하고 刺鍼後에 또 문지르면 그 痛症이 바로 가신다. 만약 낫지 않으면 위로는 手經, 아래로는 足經에서 그 證候에 걸 맞는 經絡을 찾아 刺鍼하면 바로 낫는다.”<sup>37)</sup>고 하였으며,

黃은 “九節에 刺鍼하라는 것은 督脈의 懸樞이다. 上下求之는 위로는 脊中에서 求하고 아래로는 命門에서 求하라는 말이다.”<sup>38)</sup>고 하였다.

### 【考察】

1. “九節刺之”에서 九節을 楊은 肝輸와 筋縮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두 혈은 心痛을 치료하는 穴이 아니므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馬·景岳·白話解는 督脈의 筋縮穴, 張注本에는 “九節次之”로 되어 있어 張은 肝俞옆의 魂門穴, 黃은 督脈의 懸樞로 보고 있는데 대체로 督脈의 筋縮穴로 보는 學者들이 많다. 그러나 筋縮穴은 楊의 견해처럼 心痛治療의 代表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2. “上下求之”에서 上下를 楊은 “肝輸와 筋縮穴 위아래의 背腧穴로, 馬는 위는 八椎下(至陽) 아래는 十椎下(中樞)로, 張은 위는 膈俞옆의 膈關 下는 膽俞옆의 陽綱으로, 景岳·白話解는 위는 手經 아래는 足經으로, 黃은 위는 脊中 아래는 命門으로 보고 있어 의견이 다양하므로 역시 진일보 연구가 필요하다.

### 【直譯】

心痛에 허리와 등줄기가 당기며 嘔逆이 있으면 足少陰을 取해야 한다.

心痛에 腹脹이 있고 속이 꼭 찬 느낌이 들면서 大便을 보기 어려우면 足太陰을 取해야 한다.

37) ●景岳: 此는 總言刺心痛之法也라 九節은 卽督脈之筋縮穴이니 宜先按之하야 按已而刺하고 刺後에 復按之면 其痛當立已라 如不已則上而手經과 下而足經에 求得其故而 刺之면 則立已矣라 ○語譯: 九節은 卽督脈之筋縮穴이라

38) ●黃: 當九節刺之는 督脈之懸樞也라 上下求之는 上求之 脊中하고 下求之 命門也라

心痛에 등이 당기고 숨을 쉬기 어려우면 足少陰을 刺鍼하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手少陽을 刺鍼해야 한다.

心痛에 小腹이 당기면서 脹滿이 있고 痛症이 위아래로 옮겨다녀 定處가 없으며 小便과 大便을 보기 어려우면 足厥陰을 刺鍼해야 한다.

心痛에 숨이 짧아져 숨쉬기가 어려우면 手太陰을 刺鍼해야 한다.

心痛에는 九節下를 刺鍼하되, 먼저 침 자리를 按壓하여 침을 놓고 鍼을 놓은 다음에 또 按壓하면 바로 낫는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九節의 위 아래에 있는 經穴을 찾아 尙當하게 치료해 주면 (혹은 得氣가 되면) 바로 낫는다.

### 第五節. 顛痛, 氣逆上, 腹痛, 痿厥, 噦 등 五證의 刺法

#### 【原文】

顛<sup>1)</sup>痛엔 刺足<sup>2)</sup>陽明曲周動脈<sup>(1)</sup>하야 見血立已<sup>요</sup> 不已<sup>어든</sup>按<sup>(1)</sup>人迎於經<sup>하면</sup> 立已<sup>라</sup>

氣逆<sup>上</sup>하면 刺膺中陷者<sup>(3)</sup>와 與下胸<sup>(4)</sup>動脈<sup>(4)</sup>이라

腹痛<sup>하면</sup> 刺臍左右動脈<sup>(5)</sup>이니 已刺<sup>에</sup> 按<sup>之</sup>면 立已<sup>요</sup> 不已<sup>면</sup> 刺氣街<sup>니</sup> 已刺<sup>(5)</sup>에 按<sup>之</sup>면 立已<sup>라</sup>

痿厥<sup>에</sup> 爲四末<sup>(6)</sup>束<sup>悅</sup>하면 乃疾解<sup>之</sup>니 日二<sup>요</sup> 不仁者<sup>는</sup> 十日而知<sup>라</sup>와 無休<sup>대야</sup> 病已止<sup>라</sup>

歲<sup>(7)(6)</sup>에 以草刺鼻<sup>하야</sup> 噦<sup>(7)</sup>면 噦而已<sup>(8)</sup>요 無息而疾迎引<sup>之</sup>의<sup>(8)</sup> 하어도 立已<sup>요</sup> 大驚<sup>之</sup>하어도 亦可已<sup>(10)</sup>라

#### 【校勘】

- 顛: 『太素』卷三十「頰痛」에는 '頰'으로, 『甲乙』卷九第一에는 '頰'으로 되어 있다.
- 足: 『太素』卷三十「頰痛」에는 이 글자가 없다.
- 按人迎於經: 『甲乙』卷九第一에는 '按經刺人迎'으로 되어 있다.
- 下胸: 『甲乙』卷九第四에는 '脇下'로 되어 있다.
- 已刺: 『甲乙』卷九第七에는 이 글자가 없다.
- 末: 『太素』卷三十「痿厥」에는 이 글자가 없다.
- 歲: 日刻本, 『太素』卷三十「療噦」, 『甲乙』卷十二第一에는 '噦'로 되어 있는데, 文脈上 이것이 합당하므

로 噦로 해석한다.

- 8) 噦噦而已: 『太素』卷三十「療噦」, 『甲乙』卷十二第一에는 '噦而已'로 되어 있다.
- 9) 疾迎引之: 『甲乙』卷十二第一에는 '疾引之'로 되어 있다.
- 10) 亦可已: 『太素』卷三十「療噦」에는 '亦可'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曲周動脈: 足陽明胃經上的 頰車穴 部位를 말함.
- (2) 按: 찾을, 살필 안. 人迎穴을 찾아 動脈을 피해 淺刺함. 按壓, 按摩로 해석한 사람도 있다.
- (3) 膺中陷者: 足陽明經上的 屋翳, 膺窗 等穴을 말함.
- (4) 下胸動脈: 手太陰의 天府 혹은 任脈의 膻中을 말함.
- (5) 臍左右動脈: 배꼽 좌우에서 뛰고 있는 動脈 즉 足陽明의 天樞나 足少陰의 育俞를 말함.
- (6) 歲: 噦의 誤字. 噦은 딸꾹질할 일(呃逆也).
- (7) 噦: 재채기할 체.
- (8) 無息而疾迎引之: 숨을 참고 딸꾹질할 때 올라오는 上逆之氣를 억눌러 끌어내리거나, 숨을 참고 있다가 딸꾹질이 올라올 때 같이 氣를 풀어냄.

#### 【較註】

[1] 顛痛 刺足陽明曲周動脈 見血立已 不已 按人迎於經 立已

楊·馬·張·景岳·黃은 "足陽明脈이 頰車를 循行하여 귀 앞으로 올라가고 客主人을 지나 髮際를 循行하고 이마에 이르기 때문에 顛痛이 있는 경우에 曲周를 刺鍼해야 되는데, 바로 頰車穴이다. 足陽明脈이 頰車穴 부위에서 曲頰을 싸고 지나가기 때문에 曲周라고 한다. 이 부위에서 出血시키면 바로 나오나 만일 낫지 않으면 本經에 있는 人迎穴을 찾아 淺刺하면 바로 낫게 된다."<sup>39)</sup>고 하였다.

39) 楊: 曲周動脈에 有足陽明하고 無手陽明動脈也라 ○馬: 此는 言刺顛痛之法也라 顛痛者는 當取足陽明胃經頰車穴以刺之라 此穴이 在耳下曲頰端動脈하야 環繞一周라 故로 曰曲周也라 如見血이면 其病立已요 如不已어든 當按人迎穴於本經以刺之면 其病必已也라 ○張: 頰痛은 當作顛痛이니 顛은 面也라 顛痛者는 邪傷陽明之氣也라 陽明

## [2] 氣逆上 刺膺中陷者與下胸動脈

楊·景岳·黃은 “膺中陷은 足陽明의 屋翳이고, 下胸動脈은 手太陰의 中府이다. 가슴 한가운데를 胸이라고 하는데, 胸의 옆을 下라고 한 것일 따름이다.”<sup>40)</sup>고 하였으며,

馬는 “이는 氣逆을 刺鍼하는 方法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氣逆에는 위로 가슴 한가운데의 오목한 부위를 刺鍼해야 하니 바로 足陽明胃經의 膺窗穴이고, 胸前 아래의 動脈은 任脈經의 膻中穴이다. 가슴 한가운데를 胸이라고 하고 胸의 옆을 膺이라고 한다.”<sup>41)</sup>고 하였으며,

張은 “氣가 逆上된 것은 氣가 위로 逆上되어 下行하지 못하는 것이다. 膺과 胸사이는 足陽明經脈이 循行하는 곳이니, 上部에 있는 逆氣를 刺鍼하여 經脈아래로 疏通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陽明의 氣는 人迎에서 아래의 膺으로 循行하고 膺에서 胸으로 내려가고 胸에서 臍로 내려간다.”<sup>42)</sup>고 하였다.

## [3] 腹痛 刺臍左右動脈 已刺按之 立已 不已 刺氣街 已刺按之 立已

之脈이 曲折於口鼻頤頰之間이라 故로 取足陽明曲周動脈하여 見血立已라 此氣分之邪는 隨血而解요 如不已어든 按人迎於經하면 立已라 前三句는 論經氣之相通이니 所謂中於面則下陽明이 是也요 後二句는 論陽明之氣가 上衝於頭而走孔竅하고 出顛循牙車而下合於陽明之經하여 并下人迎하니 言如不從曲折之絡脈而解요 當導之入人迎而下行이라야 其痛可立已也라 蓋陽明居申土하야 爲萬物之所歸니 邪入於經則從腸胃而出矣라 ●景岳: 足陽明之脈이 循頰車하야 上耳前하고 過客主人하야 循髮際하고 至額顛라 故로 顛痛者는 當刺曲周니 卽頰車也라 以其周繞曲頰이라 故로 曰曲周라 見血立已나 如不已어든 當按人迎於本經하야 而淺刺之면 可立已也라 ○黃: 足陽明曲周動脈은 卽頰車也니 以其周繞曲頰而名이라 人迎은 足陽明動脈이라

- 40) 楊: 胸下動脈은 中府等이니 量取也라 ●景岳: 膺中陷者는 足陽明之屋翳也요 下胸動脈은 手太陰之中府也라 蓋在中을 曰胸이니 胸之旁을 卽謂之下耳라 ○黃: 胸下動脈은 手太陰之中府也라
- 41) ●馬: 此는 言刺氣逆之法也라 凡氣逆者는 上刺膺中陷者中이니 卽足陽明胃經膺窗穴也요 及下胸前之動脈은 當是任脈經之膻中穴也라 蓋在中謂之胸이요 胸之旁爲膺耳라
- 42) ●張: 氣逆上者는 氣逆於上而下行也라 膺間은 乃足陽明經脈之所循이니 刺之使在上之逆氣하야 下通於經也라 此言陽明之氣는 從人迎而下循於膺하고 從膺以下胸하고 從胸以下臍也라

楊·馬·張은 “이는 腹痛은 足陽明胃經의 天樞穴을 刺鍼해야 하고 만일 낫지 않으면 또 本經의 氣街를 刺鍼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sup>43)</sup>고 하였으며,

景岳·黃은 “배꼽 左右의 動脈은 足少陰의 盲俞와 足陽明의 天樞이니 다 腹痛을 치료한다. 氣街는 足陽明의 氣衝穴이다.”<sup>44)</sup>고 하였으며,

語譯은 “舊注에 모두 天樞穴이라고 指指하였으나, 다만 天樞穴은 搏動이 느껴지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sup>45)</sup>고 하였다.

## [4] 痿厥爲四末束挽 乃疾解之 日二 不仁者十日 而知 無休 病已止

楊·馬·景岳·白話解는 “四末은 四肢이고 束挽은 四肢가 拘攣되고 束縛되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四支에 있는 穴을 刺鍼하여 채빨리 풀어야 하는데 每日 鍼을 놓되 하루에 두 번씩 刺鍼해야 한다. 甚至於 不仁症勢가 있어 痛癢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治療始作 十日만에 조금씩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 꾸준히 시행하여 病이 완전히 나은 이후에 치료를 마쳐야 한다.”<sup>46)</sup>

43) 楊: 腹痛은 足陽明脈所主라 故로 臍左右動脈이니 足陽明動也라 氣街亦是足陽明動脈이라 故로 不已取之也라 ●馬: 此는 言腹痛者는 當刺足陽明胃經天樞穴이요 如不已면 又刺本經之氣街也라 ○張: 此는 承上文而言陽明之氣가 循經而下行也라 足陽明之脈이 從膺胸而下挾齊하야 入氣街中이라 腹痛者는 陽明之經厥也라 故로 當刺齊左右之動脈하고 不已면 刺氣街하야 按之立已라 夫腹氣有街與衝脈於齊左右之動脈間하니 刺氣街而按之者는 使經脈之逆氣로 從氣街而出於膺表也라 此는 論陽明之氣가 上衝於頭而走空竅하고 出顛循牙車而下合陽明經하야 并下人迎하고 循膺胸而下出於齊之氣街라 是陽明氣는 出入於經脈之外內하야 環轉無端하니 少有留滯則爲痛爲逆矣라

44) ●景岳: 臍之左右動脈은 如足少陰之盲俞와 足陽明之天樞니 皆主腹痛이라 氣街는 卽足陽明之氣衝也라 ○黃: 臍左右動脈은 足少陰之盲俞와 足陽明之天樞也라 氣街는 足陽明穴이니 毛際兩旁動脈也라

45) ●語譯: 舊注指爲天樞穴이나 但天樞穴無動脈搏擊하니 姑存疑라

46) 楊: 四末은 四肢如束이라 挽은 煩也라 ○馬: 此는 言刺痿厥病在四末者之法也라 四末은 四肢也라 凡痿厥病而手足四肢攣束挽亂하면 當刺四肢之穴以速解之라 每日解之者는 必二次요 甚有不仁而無知者는 切其肉不痛者是也라 解之至於十日則二十次矣요 其肉亦當有知라 此法行之無休니 候病既已而止鍼이라 ●景岳: 四末은 四肢也요 束挽은 攣束挽亂也라 當刺四支之穴하야 疾速解之니 每日取之호대 必二次라 甚至有不仁而痛癢無覺者는 解之十日에

고 하였고,

張·黃은 “이는 陽明의 氣가 四末에 分布되지 못하여 痿厥이 된 것을 論한 것이다. 痿는 手足이 痿棄되어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고, 厥은 手足清冷이다. 陽明은 闔이 되니 氣가 通하지 않으면 闔이 折斷되고, 闔이 折斷되면 氣가 머무를 곳이 없어 痿厥이 발생한다. 陽은 四末에서 氣를 받는데 陽明의 氣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手足이 逆冷되는 것이다. 陽明은 中土에 위치하여 水穀의 바다가 되는데, 바다라는 것은 雲氣를 天下에 운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文에서는 陽明의 氣가 上下로 升降되지 못하는 경우를 논하였고 여기에서는 四方에 分布되지 못하는 경우를 논하였다. 詳考해보면 惋은 悶의 뜻이다. ‘爲四末束惋’이라는 것은 그 手足을 結縛하여 惝차고 답답한 느낌이 들게 한 뒤 재빨리 束縛을 풀어 그 氣를 잘 통하게 引導하는 것이다. ‘按之束之’라는 것은 다 導引方法이니 마치 자벌레가 몸을 펴고자 할 때에는 먼저 몸을 구부리는 것과 같다. 身半以上은 陽이고 身半以下는 陰이며, 한 낮 이전은 陽이고 한 낮 이후는 陰이니 하루에 두 번 시행하라는 것은 上下陰陽의 氣를 잘 流通시키고자 한 것이다. 不仁은 榮血이 운행되지 못한 것이고, 十日이라는 것은 陰數가 완전히 채워진 것이다.”<sup>47)</sup>고 하였다.

必漸有知하니 此法行之無休하여 待其病已而後에 可止鍼이라 ○白話解: 痿厥에 手足軟弱無力을 叫痿요 逆冷을 叫厥이라

- 47) ●張: 此는 復論陽明之氣가 不能分布於四末而爲痿厥也라 痿者는 手足痿棄而不爲我所用이요 厥者는 手足清冷也라 夫陽明爲闔이니 氣不通則闔折하고 闔折則氣無所止息而痿厥起矣라 陽受氣於四末하니 陽明之氣不行이라 故로 手足逆冷也라 陽明居中土하야 爲水穀之海하니 海之所以行雲氣於天下也라 是以로 上文은 論陽明之氣가 不能升降於上下요 此는 論不得分布於四方이라 按컨대 惋은 悶也라 爲四末束惋者는 束縛其手足하야 使滿悶而疾解之하야 導其氣之通達也라 夫按之束之는 皆導引之法이니 猶尺蠖之欲信而先屈也라 身半以上爲陽이요 身半以下爲陰이며 晝已前爲陽이요 晝已後爲陰이니 日二者는 使上下陰陽之氣로 表章而交通也라 不仁者는 榮血不行也요 十日者는 陰數之周也라 ○黃: 痿厥爲四末束은 束其四末하야 令其經氣蓄積而盛大也라 惋乃疾解之日 氣鬱生惋에 疾解其縛則積氣衝決하야 隨路皆通이라 一日二次면 不仁者十日而知다 爲之無休면 病已而止也라

[5] 歲以草刺鼻嚏 嚏而已 無息而疾迎引之 立已 大驚之 亦可已

楊·馬·景岳·黃은 “嚏은 呃逆이니,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가는 풀로 콧구멍을 자극하면 재채기를 하게 되고, 재채기를 하면 氣가 暢達되어 딸꾹질을 그치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或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참고 逆上되어 올라오는 氣를 맞이해 흩어지게 하면 바로 나오니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 또 어떤 일로 놀라게 하면 나오니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다.”<sup>48)</sup>고 하였고,

張은 “歲는 噦로 써야 하니 呃逆이다. 그 發聲이 마치 마차에 달려 있는 방울소리 같아 頭緒가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噦이라고 한다. 이는 陽明經에서 생긴 穀氣는 肺를 따라 體表에 까지 轉達되어야 하는데 肺氣가 逆亂되어 胃로 돌아가면 氣가 멎치게 되고 이 氣가 逆上하여 胃로부터 噴出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噦이 생긴다. 그러므로 가는 풀로 코를 자극하여 재채기를 하게 하므로 肺氣를 통하게 해야하니 肺氣가 疏通되면 穀氣도 轉輸되어 呃逆을 그치게 된다. 無息은 숨을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疾迎引之는 재채기를 연속해서 하게 하는 것이다. 穀氣가 胃로 들어가면 心肝으로 精華가 흩어지는데, 크게 놀라게 하면 肝心의 氣도 分散되고 胃에서 생긴 逆亂之氣도 또한 밖에까지 도달되어 呃逆이 그친다.”<sup>49)</sup>고 하였다.

- 48) 楊: 疾迎引之者는 以草刺無息이라야 可疾迎更刺引大驚令口噦愈라 ○馬: 歲는 疑作噦이니 謂每穢以草刺鼻면 必嚏요 如嚏既已면 當自屏其氣니 無得呼吸以成息하고 而急以原草로 迎其氣以引出之면 其病可立已라 設以大驚之事驚之면 其病亦可已也라 ●景岳: 噦은 呃逆이니 治之之法은 用刺鼻則嚏하고 嚏則氣達而噦已니 此一法也요 或閉口鼻之氣하야 使之無息하고 乃迎其氣而引散之하야 勿令上逆하면 乃可立已니 此二法也라 又或以他事로 驚之則亦可已니 此治噦之三法也라 ○黃: 無息而疾迎引之는 閉口無息而疾迎引之於鼻竅하야 使之嚏出也라

- 49) ●張: 歲는 當作噦이니 呃逆也라 言其發聲如車轢之聲而有倫序라 故로 曰噦이라 此는 陽明所受之穀氣가 欲從肺而轉達於膚表나 肺氣逆하야 還於胃하면 氣并相逆하야 復出於胃라 故로 爲噦이라 故로 以草刺鼻하야 取嚏以通肺氣니 肺氣疏通則穀氣得以轉輸而呃逆止矣라 無息은 鼻息不通也요 疾迎引之는 連取其嚏也라 夫穀入於胃하면 散精於心肝하니 大驚則肝心之氣分散하고 胃之逆氣도 亦

## 【考察】

1. “氣逆上 刺膺中陷者與下胸動脈”의 文句에서 “膺中陷”과 “下胸動脈”을 楊·景岳·黃은 足陽明의 屋翳와, 手太陰의 中府로 보았고, 馬는 足陽明胃經의 膺窗穴과 任脈經의 膻中穴로 보았으며, 張은 모두 足陽明經상의 經穴로 보았는데 正確한 治療點에 대해서는 臨床의 研究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臍左右動脈”을 楊·馬·張은 足陽明胃經의 天樞穴로, 景岳·黃은 足少陰의 育俞와 足陽明의 天樞로 보았는데, 이 두 經穴部位는 모두 動脈이 뛰지 않으므로 의심스런 부분도 있다. 일반적으로 脈動을 느낄 수는 없으나 이들 부위는 腹大動脈이 지나가는 자리로 깊이 누르면 脈搏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들 부위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3. “痿厥爲四末束挽 乃疾解之 日二 不仁者十日而知 無休 病已止”의 文句에서 “痿厥爲四末束挽 乃疾解之”를 痿厥의 症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治療方法으로 볼 것인가가 논란의 焦點이다. 楊·馬·景岳·白話解는 證상으로 보아 痿厥에 四肢拘攣, 束縛, 悶亂 등이 證상이 있으면 四肢에 鍼을 놓아 氣를 流通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張·黃은 治療方法으로 보아 手足을 結縛하여 꼭 차고 답답한 느낌이 들게 한 뒤 재빨리 束縛을 풀어 그 氣를 잘 통하게 引導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다 나름의 의미는 갖고 있어 어느 것이 맞다고 速斷하기 어렵다.

## 【直譯】

顛痛에는 足陽明의 曲周動脈을 刺鍼하여 出血시키면 바로 낫고, 낫지 않으면 本經의 人迎穴을 찾아 淺刺하면 바로 낫게 된다.

氣가 逆上하면 膺中陷과 胸下の 動脈을 刺鍼

可從之而外達也라 按컨대 胃絡은 上通於心하고 肝臟之脈은 挾胃하니 此는 言陽明之氣가 從肺氣而出於氣分하고 亦可從肝心而出於血分也라 此章은 論雜病之因이 有因於氣者하며 有厥在經脈者하며 有經氣之并逆者라 首論太陽而未結陽明은 蓋太陽爲諸陽主氣요 陽明乃血氣之生原이라 故로 行於上下四旁氣分血分이라 夫人之百病은 不越外內二因하니 外內之病이 皆能令血氣厥逆이라 是以 凡病多本於鬱逆也라

해야 한다.

腹痛이 있으면 臍左右의 動脈을 刺鍼해야 하니, 刺鍼後 按壓하면 바로 낫고, 낫지 않으면 氣街를 刺鍼하는데 刺鍼後에 按壓하면 바로 낫는다.

痿厥에는 四肢를 結束하여 四肢가 빠근하고 답답하여 지면 바로 풀 것이니(혹 痿厥에 四肢가 拘攣되고 빠근하면 四肢에 있는 經穴을 찾아 치료해야 하니) 하루에 두 번 할 것이고, 四肢가 麻痺되어 痛癢의 감각이 없는 경우에는 十日정도 치료해야 效果를 알 수 있다. 治療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病이 낫는다.

臍에는 가는 풀로 窠구멍을 자극하여 재채기를 하게 하면 재채기를 하면서 바로 낫고, 숨을 참고 딸꾹질할 때 올라오는 氣를 억누르거나 숨을 확 풀어내어도 바로 나으며, 크게 놀라게 하여도 또한 낫는다.

## IV. 意 譯

厥症에 등의 통증이 뒷목에까지 이어져 머리가 무거워 들기 어렵고 눈이 침침하며 허리와 등이 뻣뻣하면 足太陽膀胱經의 委中穴 部位의 血絡을 除去해야 한다.

厥症에 얼굴이 온통 붓고 또한 입술이 붓고 마비되어 침을 질질 흘리며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다가 심하면 전혀 말을 못하게 되면 足陽明經穴을 취해서 治療해야 한다.

氣逆된 氣運이 喉嚨으로 침범하여 말을 못하고 手足이 시리며 大便을 잘 보지 못하면 足少陰經穴을 취해서 治療해야 한다.

厥症에 腹部가 膨滿되고 寒氣가 많으며 背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小便과 大便을 보기 어려우면 足太陰經穴을 취해서 治療해야 한다.

목이 마르고 입에서 熱이나 침이 아교처럼 말라 있으면 足少陰經穴을 取해야 한다.

무릎이 아프면 臍鼻穴을 取하는데, 이때에는 員利鍼을 사용해야 하고 刺鍼後에는 경과를 보아 間隔을 두고 여러 번 刺鍼해야 한다. 鍼의 크기

가 소의 꼬리털처럼 가늘고 길므로 무릎을 刺鍼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喉痺에 말을 못하면 足陽明을 取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 手陽明經穴을 取해야 한다.

疝疾에 渴症이 없고 하루건너 발작하면 足陽明經穴을 取하고, 渴症이 있으면서 날마다 발작하면 手陽明經穴을 取해야 한다.

齒痛에 冷水를 싫어하지 않으면 足陽明經穴을 取하고, 冷水를 싫어하면 手陽明經穴을 取해야 한다.

耳聾에 痛症이 없는 경우는 足少陽經穴을 取하고, 痛症이 있는 경우는 手陽明經穴을 取해야 한다.

衄血이 그치지 않아 줄줄 흘러내리면 足太陽經穴을 取하고, 衄血이 되어 피가 엉겨 붙어 덩어리를 이룬 경우에는 手太陽經穴을 取하는데 낮지 않으면 腕骨을 刺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腦中의 委中穴을 刺鍼하여 出血시켜야 한다.

腰痛에 허리가 시리면 足太陽經穴과 足陽明經穴을 取하고, 熱이 나면 足厥陰經穴을 取하며, 허리를 펴지 못하면 足少陽經穴을 取하고, 속에 熱이 있고 氣喘의 증세가 있으면 足少陰經穴과 腦中의 血絡을 取해야 한다.

화를 잘 내고 飲食을 먹지 않으려 하며 말수가 적어지면 足太陰經穴을 刺鍼하고, 화를 내면서 말을 많이 하면 足少陽經穴을 刺鍼해야 한다.

顛痛에는 手陽明經穴과 아래턱 뺨의 盛脈을 取하여 出血시켜야 한다.

項痛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 足太陽經穴을 刺鍼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못하면 手太陽經穴을 刺鍼한다.

下腹部가 脹滿되어 위로 胃部와 心下에 까지 치밀어 오르며 몸이 오싹오싹 추우면서 때로 寒熱이 나고 小便이 不利하면 足厥陰을 取해야 한다.

上腹部에 脹滿이 있고 大便이 不利하며 배가 부풀어 올라 위로 가슴과 목에까지 치밀어 오르고 숨이 차 헐떡거리면 足少陰을 取해야 한다.

腹滿이 있고 飲食이 소화되지 않아 배에서 소리가 나며 大便을 잘 보지 못하면 足太陰을 取해

야 한다.

心痛에 허리와 등줄기가 당기며 嘔逆이 있으면 足少陰經을 取해야 한다.

心痛에 腹脹이 있고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면서 大便을 보기 어려우면 足太陰經을 取해야 한다.

心痛에 등이 당기고 숨을 쉬기 어려우면 足少陰經을 刺鍼하고 그래도 낮지 않으면 手少陽을 刺鍼해야 한다.

心痛에 小腹이 당기면서 脹滿하고 痛症이 위아래로 옮겨다녀 定處가 없으며 小便과 大便을 보기 어려우면 足厥陰經을 刺鍼해야 한다.

心痛에 숨이 짧아져 숨쉬기가 어려우면 手太陰經을 刺鍼해야 한다.

心痛에는 胸椎 第九椎의 筋縮 혹은 그 옆의 肝俞 또는 魂門에 刺鍼하되, 먼저 침 자리를 문지른 다음에 鍼을 놓고, 鍼을 놓은 다음에 또 침 자리를 문지르면 바로 낮는다. 그래도 낮지 않으면 胸椎 第九椎의 위아래에 있는 經穴이나 적절 한 手經 혹은 足經을 찾아 尙當하게 치료하면(혹은 得氣가 되면) 바로 낮는다.

顛痛에는 足陽明의 曲周動脈인 頰車穴을 刺鍼하여 出血시키면 바로 낮고, 낮지 않으면 本經의 人迎을 찾아 누르거나 淺刺하면 바로 낮게 된다.

氣가 逆上하면 가슴 한가운데에 있는 足陽明經 상의 屋翳, 膺窗 等穴이나 가슴 아래의 動脈인 手太陰의 天府 혹은 任脈의 膻中을 刺鍼해야 한다.

腹痛이 있으면 臍左右의 動脈인 育俞나 天樞를 刺鍼해야 하니, 刺鍼後 按壓하면 바로 낮고, 낮지 않으면 氣街를 刺鍼하는데 刺鍼後에 按壓하면 바로 낮는다.

痿厥에는 四肢를 結束하여 四肢가 빠근하고 답답해지면 바로 풀 것이니(혹은 痿厥에 四肢가 拘攣되고 빠근하면 四肢에 있는 經穴을 찾아 치료해야 하니) 하루에 두 번 할 것이고, 四肢가 麻痺되어 痛癢의 감각이 없는 경우에는 十日정도 치료해야 효과를 알 수 있다. 치료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病이 낮는다.

재채기에는 가는 풀로 콧구멍을 자극하여 재채기를 하게 하면 재채기를 하면서 바로 낮고,

숨을 참고 팔꼭질할 때 올라오는 氣를 억누르거나 숨을 확 뚫어내어도 바로 나오며, 크게 놀라게 하여도 또한 낫는다.

## V. 結 論

1. 第一節의 ‘挾脊而痛者至頂’의 文句中 ‘者’字는 없는 것이 原文을 이해하는데 낫고 ‘頂’은 ‘項’의 傳寫過程中的 誤謬로 보인다. ‘至頂頭沉沉然’中 ‘沉沉然’은 ‘几几’가 意味上 이해하기 쉽고, “昏溹溹然”은 입 주위의 經氣가 厥逆되어 입술이 마비되고 부어 침을 흘리는 증상으로 보인다.
2. 第二節의 ‘顛’이 ‘頷’의 音을 假借한 글자로 보이는데, ‘頷’은 귀밑의 曲骨을 말하며 耳下腺이 위치한 곳이다. “聾而不痛者 取足少陽 聾而痛者 取手陽明”에서 經絡의 遊走로 볼 때 足少陽正經과 手陽明別絡이 귀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 耳聾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痛症의 有無로 治療經絡을 달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諸家들도 分明한 理由를 제시하지 않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臨床上으로는 寒熱虛實을 구분하여 治療經絡을 결정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衄而不止 衄血流 取足太陽 衄血取手太陽 不已 刺宛骨下 不已 刺膈中出血”의 문구에서 衄血은 코피, 衄血은 코피가 엉겨 붙어 덩어리진 것을 말하는데 그 原因은 火熱이다. 따라서 膀胱經은 補하고, 手太陽小腸經은 瀉해야 한다. 또한 宛骨下는 腕骨로 보이나, 心經의 通里穴, 耳後高骨 즉 完骨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腰痛痛上寒 取足太陽陽明 痛上熱 取足厥陰”의 문구에서 허리가 시린 경우와 熱이 날 때를 구분하여 治療經絡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經絡이 갖고 있는 經氣의 多少나 性質로 그 治療機轉을 설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六氣論의 經脈의 效用을 파악해야 하는가가 難題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中熱而喘 取足少陰 膈中血絡”은 治療點을 足少陰經

과 膈中(委中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腰痛의 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喜怒而不欲食 言益少 刺足太陰 怒而多言 刺足少陽”의 文句中 “喜怒”는 善怒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3. 第三節에서 논하고 있는 小腹滿은 下腹部의 脹滿을, 腹滿은 上腹部의 脹滿을 말한다. 下腹部의 脹滿은 經絡上 厥陰經과 關係가 있으므로 厥陰肝氣가 逆亂되어 下腹部에 病症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小便不利가 그 특징이다. 上腹部의 脹滿中 呼吸器系에 까지 證候가 나타난 것은 腎氣의 厥逆이고, 消化器系에 主症狀이 보이면 이는 脾氣의 厥逆이며, 共通的으로 보이는 증상은 腹滿과 大便不利이다.
4. 第四節의 “九節刺之”에서 九節을 大部分 肝輸와 筋縮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두 穴을 心痛治療의 代表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上下求之”에서 上下를 肝輸와 筋縮穴 위아래의 背腧穴, 위는 八椎下(至膈) 아래는 十椎下(中樞), 위는 膈俞 옆의 膈關 下는 膈俞 옆의 陽綱, 위는 手經 아래는 足經, 위는 脊中 아래는 命門으로 보는 등 학자들간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5. 第五節의 “氣逆上 刺膈中陷者與下胸動脈”의 文句中에서 “膈中陷”과 “下胸動脈”을 足陽明의 屋翳와, 手太陰의 中府, 足陽明經의 膈窗穴과 任脈經의 膻中穴, 足陽明經上의 經穴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正確한 治療點에 대해서는 臨床的 研究가 더 필요하다. “臍左右動脈”은 足陽明胃經의 天樞穴이나 足少陰의 肓俞로 보인다. “痿厥爲四末束挽 乃疾解之日二 不仁者十日而知 無休 病已止”의 文句中에서 “痿厥爲四末束挽 乃疾解之日二”를 痿厥의 症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治療方法으로 볼 것이냐가 논란의 焦點인데, 다 나름의 의미는 갖고 있어 어느 것이 맞다고 速斷하기 어렵다.

## 參 考 文 獻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清·袁昶刻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1.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本).
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5. 王冰: 王冰註靈樞經, 臺灣中華書局, 1972.
6.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7. 張馬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서울, 一中社, 1988.
8. 陳夢雷外 1人: 醫經註釋(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9.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1.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12.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4.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5. 小曾戶洋: 黃帝內經古注選集5(靈樞講義), オリエント出版社, 1988.
1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17. 王貴元 外1人: 評析本白話黃帝內經,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3.
1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論章, 1990.
19. 元陽真人: 黃帝內經(附白話全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3.
20. 李政育: 靈樞讀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21. 宗全和: 靈樞經, 春秋出版社, 內蒙古自治區, 1988.
22. 池田政一: 靈樞概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2.